

제8회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 양상

일시 : 2003. 9. 27 10:00 ~ 16:00

장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주 최 : 성 남 문 화 원

주 관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후 원 : 성 남 시 / 성 남 시 의 회

1. 대회사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4
2. 속 사	미대엽 (성남시장)	6
	김성환 (성남시의회회장)	8
3. 일정표		10
4. 향토문화연구소 연혁		11
5. 기조강연 : 유호기 (홍익대 사회교육원장 / 한국근대사)		
	"한국 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	13
6. 주제발표		
■ 주제발표 논문 1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국근대사)		
	"성남지역의 의병행동" ...	23
박정호 (문수전 (신구대 / 한국중세사)		39
박정호 (김세민 (미화여대 / 한국근대사)		42
■ 주제발표 논문 2		
서승갑 (경원대 / 한국근대사)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		45
박정호 (한운섭 (성남가톨릭대 / 국문학)		61
박정호 (정은경 (분당대전고 / 한국근대사)		63
■ 주제발표 논문 3		
한상도 (건국대 / 한국근대사) "일제하 성남지역의 합일민족운동" ...		67
박정호 (정석훈 (국민대 / 한국근대사)		84
박정호 (조재근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한국근대사)		87
7. 폐 회 사		

기조강연

한국 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주최발표 : 유증기 (충신대학교 사회교육원장)

한국 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와 현대적 의의

유준기 (충신대학교 사회교육원장)

I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맞고 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한 세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대 전환기이기 때문이다. 인류문명의 새 지평을 열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에 인류가 맞게 될 변화와 성격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막연히 '미래다음이 뻔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준거의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와 우리 나라는 기술정보사회, 개방국제화사회, 다변다원화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즉, 정보화사회·지식사회·서비스 사회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산업사회가 되려면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개발되어 산업발전에 활용될 것이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국가 경제도 세계경제권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듯 중대한 시기에 우리민족은 새로운 천년에 도전할 필사진은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미래사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현실문제만 급급하고 우리 역사, 우리 문화는 소홀히 하는 풍조가 생겼던 것이다. 그래서 물질문명만 앞세우다가 정신이 황폐해지고 가치관이 전도되더니 급기야

는 IMF의 경제 난국과 현재 경제위기를 자초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민족 의식과 민족정기를 선명함으로써 위기 앞에서 충치고, 불치권 힘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실낱은 조선시대의 왜란과 호란, 구한말의 의병전쟁,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3·1운동과 1920년대 말 민족협동전선운동 및 신간회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역사의 고장이다. 그 동안 성남문화원에서는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하여 수차례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성남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계에도 공헌한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이번에 ‘일제와 성남지역의 민족희망운동의 양상’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런 학술회의를 통해서 민족이 사살, 이념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인식시키고 세계화 시대에 민족의 정체성과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문제인 사회갈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II

한국민족운동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저항하여 국권회복과 근대 국가건설을 위하여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전반기에 다양하게 전개한 일제의 침략 운동을 가르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민족운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상이나 이념보다 일제를 타도하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제창주제와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변혁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정체를 포괄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사상과 이념으로 체제유지와 합리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히 한국민족운동도 이해를드리지 않는데 따라 지금모순에 대한 투쟁으로 본다는가 사회주의적 민족운동을 폄하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민족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세기말의 한국사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의 내제적 발전 과정 위에서 이미 해체 과정에 있었던

봉건적인 사회체제를 파도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형성한다는 일이었다. 그리고 타
른 하나는 서해동점(西海東漸)의 물결 속에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에 대응하
고 밀제침략에 대비하여 민족과 국가를 수호하고 자주독립을 견지해야만 하는 일어
었다. 그리하여 외세의 침투에 대한 대응과 밀의 침략에 저항하는 일이 국가사회를
근대화하는 일과 더불어 민족의 지상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시기의 우리
민족이 앞면한 기본과제는 근대적인 개혁과 민족의 독립 및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강한 민족의식을 구현하는 일이었으며, 이것은 이른바 변혁주체(變革主體)와 저항주
체(抵抗主體)의 형성과 존재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같이 근대 한국의 민족의식
과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반기의 충격과 위기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전개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한국근대사의 큰 흐름은 민족의식의 형성과 민족주의
의 전개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이러한 충격과 위기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전개된 한국근대사의
과정은 민족주의가 그 중요한 흐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한국의 민족주의는 원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내생적(內生的)'으로 일
어나지 못하고 외부의 충격에 자극되어 일어난 이른바 '외생적(外生的)' 민족주의(民
族主義)라고 지적한 학자도 있지만 이는 민족사의 내생적 발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내생적발전 위해서 외세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며 국권회복을 도모하려는 민족운동이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근대의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제보를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개화사상(開化思想)·동학사상(東學思想)의 세 흐름으
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세 사상은 한말의 대외적 민족의식 고취와 민족사상·민
족운동 전개에는 일정하게 공헌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알내 극복하지 못한 것
도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 세 사상이 대내적으로는 반봉건(反封建) 개혁을 주장하였
고 대외적으로는 반외세(反外勢), 반침략(反侵略)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면서도 그들의
운동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국권이 상실되는 가장 큰 민족적 위기와 수난에 직면
하게 됨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고식적으로 외세와 밀제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연구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역사이해는 민족사의 주체성과 내제

적 발전을 무시하는 일본의 식민주의의 타율성이론과 경제성이론에 맞서기 위함이 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간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식민지화 문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민족운동에 있어서 민족주의(민족주의 우파 또는 좌파)세력 주도론과 사회주의 운동 주도론 그리고 이 두 세력을 극복하고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 전선운동 또는 협동전선운동주도론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항일민족운동 선상의 하나의 노선에 지나지 않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민족운동이 이태을로거나 기타 다양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라도 우리 민족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근대 주권국가 건설에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족주의세력 주도론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 운동을 불쌍그러 타율성론, 외부의식부생론, 계급해방지상론으로 규정하여 비난하는 것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에 민족해방을 위한 시대적 고민을 간파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 주도론자들은 전보적 역사인식이라는 이름아래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대중투쟁만이 민족 해방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민족운동사 연구를 보수적이며 극우반공 이태을로기적 편견에 젖어 통일을 방해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전개된 한국민족운동사의 기본 성격과 실증주의적 역사인식을 피면한 잘못된 시각이다.

넷째로, 근대한국항일민족운동은 그 양상에 따라 무장투쟁, 의열투쟁, 문화투쟁, 여성운동, 소년운동, 연문운동, 민족교육운동, 노동자·농민운동, 학생운동 등과 이념상으로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운동 등의 노선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야 할 것은 무장투쟁이 아니라고 하여 문화운동, 국학운동 등을 민족운동 선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민족운동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열투쟁,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종교계의 항일 투쟁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 강점의 전체적 조치로써 민족정신의 파괴공작을 획책하였다. 이는 정치 경제 군사의 침략과 함께 종교적 침략을 병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유교와 기독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교의 경우 유림의 친일화 작업에 착수하여 관료의 친일화, 은사정책의 실시, 유학교육에 대한 통제정책, 유림계의 분열 정책, 실권관과 향교의 친일화정책에 주력하였고, 친일유림단체로 대동학회를 조직하여 사회적 중추 세력이었던 유림계의 친일화에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유림계의 대응은 항일의병전쟁, 상소운동, 항일자결, 장서두서운동, 비밀결사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그중 대표적인 구국운동은 의병전쟁이었다. 이러한 항일 피맹운동은 1919년 11월부터 1915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15년을 기점으로 독립군으로 전환되었다.

기독교의 경우, 일제는 식민지 동화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기독교임을 인식하고 사립학교령, 조선교육령, 개정조선교육령, 포교규칙, 조선심독 등의 법률을 제정하여 기독교 탄압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인들은 신민회를 통한 민족계몽과 국외독립운동 기지건설 및 조선국민회를 비밀결사를 통하여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한국 독립운동의 할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을 주도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한국의 종교인들이 일제의 국권침탈이라는 역사적 고통속에서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고취시켜 일제의 동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막을 수 있었고 영광된 민족사로 되찾는 길을 모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한국민족운동의 현대적 의의는 민족정기의 현대적 의의를 통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우리민족은 독창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지만,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 민족의 존망과 민족문화의 융성에 위기를 맞은 적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자주적인 민족정기를 발휘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주체적이고 단합된 저력으로써 외세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민족정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최대의 민족 수난기였던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 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들어 피어린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족정기는 우리민족사 전 기간에 걸쳐

서 면면히 이어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3·1운동과 의열투쟁은 가장 전형적인 본보기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민족정기란 국가 위난 시에는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고 보존함에 있어서 평화시에는 우리민족이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아의식을 확립하여 정의롭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민족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있어서는 만일 고귀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정보화 사회 특징은 디지털 혁명,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산업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정보사회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먼저 정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가 될 것이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이 엘리트 집단이 정치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모든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또 경영면에서는 경영주 혼자 정보를 독점하여 기업경쟁을 마음대로 하는 시대는 끝을 맺고 모든 사원이 정보를 공유하며 투명한 경영으로 노사화합이 잘 이루어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이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간에는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팽창하겠지만 강대국이 출현하는 곳 아니라 오히려 작은 나라로 갈라져 뉴욕시가 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학자도 있다.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세계화의 상황을 자아의 정체성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방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그 조건이라 함은 경제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말한다. 경제성의 원칙은 한 국가 자신의 정치적 자주성, 경제적 자립성, 문화적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제성의 원칙은 개방화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분단 상황은 우리 나라가 내적·외적으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풍속성, 문화적 식민성의 상태를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세계화가 촉진되어 인간과 생활권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세계가 하나의 생활공간이나 공동체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민족이 민족정기를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 과제는 21세기 우리민족사의 발전 과정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우리민족이

국제적 고아가 되느냐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맞대고 통일된 조국에 구
속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민족정기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논문1

성남지역의 의병 항쟁

주제 발표 :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국군대사)

약정토론 : 문수진 (신구대 / 한국출세사)

약정토론 : 김세민 (이화여대 / 한국군대사)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朴敏泳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자 례》

1. 머리말
2. 남한산성 의진의 활동전말
3. 성남지역의 중, 후기의병
4.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제가 도발한 청일전쟁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일제는 한편에서는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갑오경장을 추진하면서 내정간섭을 감행하는 양면 전략으로 한국침략을 강화하게 되었다. 갑오경장이 재야의 유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탄과 분노를 낳아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일제침략으로 야기된 이러한 긴박한 시국상황에서 창립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게 된다. 1895~6년간에 집중된 이 의병을 전기 의병(율미의병)이라 이른다. 그후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제는 다시 한번 대한침략을 가속화하게 되었고, 급기야 탐구조약인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다시 일어난 의병을 중기 의병(을사의병)이라 이른다. 그리고 1907년 중한기에 광무황제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 격화되는 단계의 의병을 후기 의병(정미의병)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말에 일어

난 의병은 일제 침략의 강도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형태로 발전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성남지역도 한말 일제침략에 상응하여 전개된 항일투쟁의 단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 궤적을 밟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즉 성남지역에서도 3단계에 걸친 의병전쟁 전 기간에 조직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일제 군정을 상대로 활발한 의병활동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성남지역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행정개편 때마다 여러번 구획이 변경되었다. 즉, 1895년 전국을 23부로 개편할 때 한성부의 관할에 속하게 되어 광주군으로 되었고, 1896년에는 경기도 광주부가 되었다가, 1906년 지방구역 정리 때 광주군이 되었다. 하지만 성남지역은 역사적으로 주로 廣州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말 성남지역 의병은 편의상 광주군 관내에서 일어난 의병활동 전체를 기술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의병활동 전모를 일단 서술의 범위로 삼았고, 남한 산성의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기의병 단계와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일어난 산발적 형태로 벌어진 중, 후기의병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2. 남한산성의진의 활동전말

전기의병(을미의병) 시기, 성남(광주)지역은 전국 가운데서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중심권역에 속해 있었다. 남한산성의병의 활동이 그것이다. 남한산성의병은 제천의병, 춘천의병, 강릉의병, 진주의병, 안동의병, 홍성의병 등과 함께 전기의병을 상징하는 단위 무대로 평가되고 있다.

남한산성의병은 단발령 공포 직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편성된 의진이었으며,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군사적 요충지인 남한산성을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점거한 채 서울 진공을 눈앞에 두었을 정도로 명성을 크게 떨친 의진이다. 특히 서울의 인후인 남한산성을 점거한 그 자체가, 나아가 이 의진이 구상하였던 서울 진공계획은 1908년 1월 신흥도장희군의 별동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전격한 사례와 같이 일제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만큼 큰 파장을 지니는 것이다. 일본에

서 발간되던 『東京朝日新聞』이 남한산성 천거 과정에서부터 폭제 때까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의병의 동향을 분석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산성의병은 이천에서 결성된 의진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천의병은 1895년 12월 말 서울에 있던 金河忠, 趙性學, 具然英, 金泰元, 申龍熙 등의 우국지사들이 단발령에 격분, 이천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¹⁾

이천의병은 장의대장 민승원을 중심으로 蘇指揮 김하락, 좌군장 金龜性, 우군장 신용희, 선봉장 김태원, 중군장 구연영 등의 편제를 갖추어 활동에 들어갔다.²⁾ 1월 18일(음 1895년 12월 3일) 魏觀(이천 남고개)에서 일본군 1백여 명을 상대로 첫 전투를 치워 승리하게 된다. 이때 의병들은 제주하는 적을 한때 장주군 노부목[露項] 장터까지 추격해 무기, 군량 등 많은 전리품을 노획한 뒤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서울에서 파견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와해되고 말았다.

그후 이천의병의 핵심인물이었던 김하락의 주도하에 민승원, 신용희, 구연영, 권귀석, 김태원 등의 인물들이 2월 25일 다시 모여 흩어진 포군과 연병을 규합하였다. 이때 모인 의병수는 2천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³⁾ 이것이 남한산성 의병으로, 그 편제는 아래와 같다.

의장 朴學英
 의주대장 沈都鎔
 軍節副都將 金河忠
 都將 金龜龍 先鋒將 金泰元
 中軍將 具然英 右翼將 金貴星
 左軍將 申龍熙 右翼將 金龜誠

1) 謝清益, 『金河忠義陣의 義兵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3.

2) 金宗賢 譯, 『金河忠征討日錄』, 韓國社, 1968, pp.19~20.

3) 위의 책, pp.19~20.

한편, 이 무렵 성남(광주) 일대에서는 남한산성의병과는 별도로 沈漢元(혹은 沈漢蓀)을 주장으로 하고 일어난 일단의 의병이 활동하고 있었다. 광주군수 朴基仁도 이 무렵 의병에 의해 처단되었을 만큼 생색을 빌렸다. 그리고 심건원파 광주의병은 이 원의병에 앞서 2월 23일 남한산성을 장악, 활동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광주의병은 參頭 張基謙의 인솔하에 서울에서 출동한 관군 8백명의 공격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심건원은 남한산성의병에 서한을 보내 합세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남한산성의병은 2월 28일 관군의 포위망을 뚫고 산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⁴⁾

이때 일본의 『東京朝日新聞』에서도 의병의 남한산성 점거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남한산성 안의 적(의병-필자) 수는 약 1천 6백 명 이다. 그 가운데 1천여 명은 광주, 이천, 그리고 楊口(양정-필자)와 포진, 즉 구지발병이고, 그 나머지 6백 명은 광주의 농민이다. 적의 수지(의병장-필자)는 광주의병장 沈漢蓀, 이천의병장 朴興英(朴興英-필자), 양군의병장 李顯壽 등 3명이다.⁵⁾

위의 기사로 미루어 본다면, 남한산성 안의 의병 가운데 근간이 되는 병력은 성남(광주)지역의 포군과 농민이며, 이천과 양평에서도 많은 의병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 점령 후 의진에서는 선봉장 김태원은 남문을, 후군장 신용희는 북문을, 우익장 김정성은 서문을, 좌익장 김귀설은 동문을, 그리고 중군장 구연명은 성 중앙부를 각각 파수케하여 당초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어 3월 5일경 첫 전투를 벌여 대포 1문을 노획하는 등 대승을 거두었다.⁶⁾

이에 다급해진 일제는 정부로 하여금 강화도에 주둔하던 정예관군 3백여 명을 남한산성으로 출파하면서 성을 에워싼 채 의병을 더욱 압박하였다. 이 때의 포위상황

4) 金壽元, 『集義堂遺稿』, 『韓末義兵史料集』,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p.108.

5) 『東京朝日新聞』 1896년 4월 1일자.

6) 『東京朝日新聞』 1896년 3월 18일자.

을 보면 성 안의 의병 2천 명에 대하여 관군은 천위대와 강화병을 합해 3개 중대와 2개 소대로, 지휘소를 남문 밖 桐岩洞에다 설치하고 1개 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동문 밖 佛堂谷과 龍校里에 각 1개 중대, 서문 밖 石倉堂과 동문쪽 龍觀里에 각 1개 소대를 분산 배치하고 군수며 보급로를 차단하며 포위공격의 태세를 취하였다.⁷⁾

성 안의 의병과 성 밖의 관군간에는 연일 크고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투 때마다 지리적으로 우세를 점한 의병측에 유리하게 전황이 돌아갔다. 관군은 기습작전을 펴기도 하고 火攻을 계획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攻城작전을 벌였으나, 그때마다 의병측의 반격으로 연번히 격퇴당해 성에 접근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산성을 사이에 두고 의병과 관군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의병측에서는 서울진공을 목표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었다.⁸⁾ 서울 진공은 실제로 많은 의진들이 표방하고 있었던 구호지만, 대개의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지병의 경우에는 강력한 전격면에서나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면에서 볼 때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⁹⁾

그러나 이러한 서울진공 계획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다. 의진이 와해되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의진의 핵심인물 김하락과 김대원이 기록한 내용에는 주장 박준영의 배신으로 와해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곧 관군측에서는 비밀리에 김귀성으로 하여금 박준영이 귀순하기만 하면 그를 장주유수에 임명하고, 김귀성을 수원유수에 임명한다는 감언이설로 계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군에 계수된 3월 20일 저녁 전군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 회식편을 성대히 벌였고, 그의 흔적을 눈치채지 못한 의병들은 이 날 저녁 만취가 되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으며, 각 성문의 파수를 맡았던 군사들조차도 대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튿날 새벽, 이때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박준영이 서문과 북문을 열자 문 밖에서 대기중이던 관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7) 『漢城新報』 1896년 3월 19일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p.220.

8) 柳漢語, 앞의 논문, pp.20-21 참조.

9) 『東京朝日新聞』 1896년 3월 28일, 31일자.

일시에 성 안으로 물러 들게 되자, 의병들은 사방으로 뿔뿔히 흩어지고 말았다. 이때 박준영은 세신행위가 드러나 의병들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다.¹¹⁾

한편, 『義誠新報』에서는 의진의 와해 원인에 대해 위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성이 함락되기 수일 전부터 성 안의 간부들 사이에는 패산론과 반대론이 대립되었는데, 주장 박준영이 패산을 반대하다가 반대파에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軍心이 흔들려 군사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관군이 서툰으로 들어가 함락시켰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두 견해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 진위 여부와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좌익장 김귀성이 관군측의 최유로 귀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박준영이 처단 내지는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학박이나 김태원 등을 비롯한 핵심인물들은 의진 와해 이후에도 오랫동안 각지를 견전하며 항전을 지속해 갔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의병해산을 주장하는 온건노선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후의 수성전에서 의병측의 저항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이 점은 당시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한 전군장 김태원이 남긴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적병은 일제히 성에 돌았고 서로 공격하였는데 여음이 침묵과 같았고 중서가 구분되지 않았다. 담장부터 날이 밝기까지 쓴 싸움이 끝이지 않았다. 시체가 싸이고 피가 흘러 병사와 군마[士馬]의 죽은 수가 5백여 명이었고, 적병의 죽은 자가 3백 명이었다. 이제 포위망을 풀고 동쪽으로 탈출하여 싸우며 항군하였는데, 처음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따르는 군사가 4백여 명이었다.¹³⁾

결국 이 날 “의병측에서는 희생된 병사와 군마가 5백여에 달하였고, 관군도 3백여 명이나 전사”하였을 정도로 정방간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의

10) 金宗賢 譯, 앞의 책, pp.24~25 참조; 金泰元, 『義誠堂遺稿』, p.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 p.223.

11) 『義誠新報』, 1896년 3월 25일자; 『義誠新報』, 1896년 4월 5일자.

12) 義誠新報, 앞의 논문, p.24; 金宗賢, 『義誠堂遺稿』, pp.16~17.

병은 남한산성을 점거한 지 한 달만에 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하고 말았다.

수성전에서의 패배로 의병은 그간 다저은 인적, 물적 기반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러나 김화락을 대장으로 추대한 관여의병은 새로운 합전 근거지를 찾아 남행길에 오르게 된다. 그리하여 남한산성의 관여의병은 안동, 경주, 영덕 일대에서 주장 김화락이 전사하는 1896년 7월까지 활발한 제기항전을 전개함으로써 전기의병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은, 그리고 장기지속적인 항전을 벌인 대표적인 의진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¹³⁾

한편, 남한산성 패전 이후 관여의병 가운데 주력부대는 영남지방으로 남하했지만, 그 일부는 성남(광주) 일대에 흩어져 산발적인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그해 5월 광주군수가 '匪徒들을 치고' 있었다는 기록과¹⁴⁾, 5월 9일 정부에서 각지 의병 탄압을 위한 군대를 세 길로 파견할 때에 60여 명의 관군이 성남(광주)으로 내려갔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 반증된다.¹⁵⁾ 즉 성남 일대에서는 1896년 5월 무렵까지도 의병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성남지역의 중, 후기의병

전기의병 이후 의병이 제기하는 단체인 중기의병(음사의병)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 강제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제기한 중기의병은 1907년 헤이그평화 회기 이후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밀려의 침략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대 심화되어 대일 전면전의 성격을 띤 의병전쟁의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 이 단계의 의병을 후기의병(정대의병)이라 이른다.

한편, 음미의병에 일반 병사부로 참가하였던 농민층 가운데 상당수는 해산 이후 1904년간에 펼쳐진 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冥學黨, 南學黨, 火賊, 活我黨 등의 이름을 걸고 항쟁한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¹⁶⁾ 이러한 농민운동은 반봉건

13)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pp.64-68; 南漢報, 알의 논문, pp.26-37 참조.

14) 『독립신문』 1896년 5월 7일자.

15)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자.

16) 趙東杰,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pp.37-40.

투쟁의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의병으로 제기하기 이전의 과도기 단계의 투쟁이었다. 성남(광주)지역에서도 이러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들은 대개 해산의병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성남(광주)을 비롯하여 안산, 음죽, 죽산 등지에 “黨黨가 횡행하며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백성들이 살기에 힘입지 아니하니 민망하더라”¹⁷⁾라는 기록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남의 농민운동 주동자나 투쟁 내용 등 그 실체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남지역에서 중, 후기의병 시기에 그 실체나 활동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단위 의병은 현재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이 시기에도 역시 의병이 편성되어 활동하거나, 다른 지역의 의병이 성남 일대로 이동해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중,후기 의병 시기 성남(광주) 일대에서 전개된 의병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자료상 확인되는 성남(광주)지역 최초의 의병은 1905년 6월에 활동한 의병이다. 즉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지만, 광주지역에서 약 2백 명으로 편성된 의병이 富民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고 총기를 수집해 갔다는 기록이 그것이다.¹⁸⁾ 이어 같은해 5월(음)에는 具萬畝라는 인물이 광주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한다.¹⁹⁾

후기의병시기인 1907년은 성남을 비롯하여 광주, 죽산, 용인, 안성 등지에서 의병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이다. 특히 1907년 8~10월간은 “한권의 폭도가 유린하는 바가 되었다”고 일제 정보기록에서 실도하였을 정도로 이 일대 거의 전역에서 치열하게 할당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남(광주)지역은 일제 군정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가운데서도 의병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곳이었다.²⁰⁾ 이 무렵에 한국주차군사령관 長谷川好道가 외부대신 林董에게 “서울과의 거리 50리에 있는 광주에서 여주, 죽산, 안성, 양지 지방에 걸친 일대에는 이들

17) 金允植, 『建國前史』 제8권, 1896년 12월호.

18) 『全羅新聞』 1905년 6월 6일자.

19) 黃柱, 『梅里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33, p.335.

20)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基使史編輯資料』(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料集』 3, 1971), pp.513~514.

무리가 출몰하며 본국인에게危害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주력을 광주에 두고 이래로 이들에 대한 토벌에 중사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까지 평온을 되찾지 못하였다”²¹⁾고 한 보고를 통해서도 광주일대의 고조된 적병투쟁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의 9월 23일자 보고서에는,

광주 수비대였던 보병 제47연대의 1개 소대(소대장 이하 18명)는 牛川(楊根의 서쪽 약 40리에 있음) 및 分院洞(우전 남쪽 약 1천 5백여피) 부근에 다수의 목도가 집합해 있음을 탐지하고, 17일 오전 1시에 광주를 출발해서 이들 적을 향해 진전함. 동일 오전 6시에 분원동 부근에 도달하여 院地 남쪽 고지 부근에 있는 다수의 적과 약 1시간 반 동안에 걸친 교전 끝에 다대한 손해를 입히고, 여왕을 앞단 방면으로 격퇴했음. 적은 교전하는 동안 병렬의 저항하였으며 또 모란까지도 발사했다고 함(구식 山砲 1문을 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병의 군수가 보관하던 무기 가운데서 빼앗은 것이 아닐까 추측됨). 적은 20구의 시체를 버리고 완전히 패주했음. 노획품은 총 3정, 단마 약간 그리고 조개나뭇이 1개입. 적의 병력에 대해서는 미상이지만, 분원동 읍민서 말에 따르면 약 4백 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²²⁾

이와 같이 광주지역의 4백여 병에 달하는 의병들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다. 특히 해산군인들이 의병에 다수 참가하면서 전투의병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즉 1907년 12월 28일자 일본군의 보고서에는 “利川 수비대에서 파견되어 있는 토벌대는 23일 광주 서남쪽 약 30리 지점에서 舊 官兵이 혼합된 약 20명의 적을 만나 이들을 북쪽으로 격퇴시켰음. 적의 사망자는 7명이며 부상자가 수명 있음”²³⁾이라고 하여 광주지역의 의병과 해산군인들이 연합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며, 1908년 1월 8일에도 “광주 동남쪽의 慶安驛 부근에서 이건의 韓兵으로 구성된 약 20명의 적을 공격하여 그 가운데 10명을 죽이고 총기와 그밖의 물품을 노획함”²⁴⁾이라고 하여 해산

2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韓末義兵史料』 IV, 2002, pp.79-80.

22) 위의 책, p.94.

23) 위의 책, p.151.

24) 위의 책, p.151.

군인이 중심이 된 의병이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은 일제 군정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908년 중반기까지 그 실세를 떨치고 있었을 만큼 경기도 가운데서도 의병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던 곳이었다.²⁶⁾ 당시의 신문 기사에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의병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자 기사에는,

광주군 경안면 自衛團長 南大熙씨가 일전에 義兵 4명을 잡아 포박하여 수비대에 보내어 4명 의도는 포살하고 남치는 공이 있다 하며 사천남을 주었는데, 三軒村에 적도 4백 여명이 남대희씨 집에 돌입하여 남씨를 결박하고 무수 난타하였는데 사경에 이르렀다.²⁸⁾

이와 같이 광주지역에는 4백여 명 규모의 의군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일본군과 교전하는 기사는 자주 보인다. 또한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4일자에는 “광주군 동남 방향 靑甲山에서 의병 20여 명이 광주군에 주재하는 일본 수비대와 교전”²⁷⁾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고, 11월 4일자에는 “광주군 지방에는 의병 약 20명이 출몰한다”²⁸⁾는 기사도 보인다. 또한 11월 28일자에는 “광주군 동남 30리 부근에서 의병 십여 명이 분진소 일본 헌병 및 보조원 4명과 충돌”²⁹⁾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일본군의 보고서에도 1908년 “이천수비대에서의 特務警探이 인솔한 도벌대는 6월 26일과 27일에 걸쳐 광주 남방에서 적 3명을 사살하고 총기 1정을 노획하였다”고 하였으며, “京城에서 파견된 警探 이하 수색대는 7월 5일, 6일 양일에 걸쳐 광주 군내에서 적 2명을 붙잡았다”. 또 “경기도 광주의 수비병 및 순사는 8월 3일 군내에서 적 약 10명을 도벌하여 그 중 2명을 사살하고 총 5정을 노획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시기 광주를 중심으로 양주, 포천, 이천, 양근 등지에서 활동하던 의병장으로는 金允福과 金允渡(형제로 추정됨)를 비롯해 李益三(李春三?), 徐可, 尹煥, 林文淳, 高在

25)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暴徒史編輯資料』(國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國立運動史資料集』 3, 1971), pp.513-584.

26)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자, 『참보』.

27)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4일자, 『참보』.

28) 위와 같음.

29) 위의 신문, 1908년 11월 28일자, 『참보』.

義, 李根盤, 任玉汝 등이 손꼽힌다.³²⁹ 이들 가운데 김광좌, 김광준 두 의병장은 휘하에 8백 여명을 거느렸을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⁰

이와 같은 의병장들의 주도하에 광주지역 의병들은 일제 군경을 상대로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면서 전국 규모로 전개되던 의병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현재 자료상 확인되는 교전사실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1907년에는 9월에 양지 출신의 전 주사 임옥이 의병이 광주 實村面에 출현하며 원주 의병대장의 이름을 사용하여 포군 70여명을 소모한 뒤 용인, 안성 방면으로 이동하며 일본군과 교전하였다.³³¹ 이어 10월에는 광주군 雲馬面 獨店에서 일단의 의병이 일제 군경을 상대로 교전을 벌였다.³³² 또 12월 23일에는 약 30명의 의병이 광주군 大旺面 屯土里에서 일제 군경 연합의 '토벌대'와 접전을 벌였다.³³³

1908년에 들어와서는 1월 4일, 18명의 의병이 慶安面 中座洞에서 출동한 일제 경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³³⁴ 6월 4일, 일단의 의병이 광주군 官洞에 출현해 일군 4명을 처단하였으며, 같은 달 12일에는 다시 광주군 小雲洞에서 격전이 벌어졌다.³³⁵ 7월 6일에는 14명의 의병이 광주군 畝村面 牛山洞에서 광주 주둔 일제 군경과 교전을 벌였다.³³⁶ 8월 31일에는 의병 20명이 광주군 五兩面 농곡의 '무명산'에서 출동한 일제 군경을 상대로 접전하였다.³³⁷ 9월 28일에는 의병들이 광주 慶安驛을 공격하였고, 11월 7일 다시 광주에서 교전이 있었다.³³⁸

그리고 1909년에 들어와서는 3월(음)에 김광좌, 김광준 의병장이 부하 8백 여명을 이끌고 광주로 들어왔으며,³³⁹ 9월(음)에는 다시 이준삼 의병도 일시 광주에 들어왔다.³⁴⁰ 마지막으로 국망 직전인 1910년 7월 22일 광주에서 교전이 벌어졌다.³⁴¹ 현재

3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지 책, p.532.

330 尹炳南, 『韓國近代史料論』, 一編集, 1979, p.52.

332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暴徒史編輯資料』, p.534.

333 위의 책, p.532.

334 위의 책, p.522.

335 위의 같은.

336 黃柱, 『梅泉野錄』, pp.450-461.

337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앞지 책, p.527.

338 위의 같은.

339 黃柱, 앞지 책, pp.474, 478.

340 위의 책, p.481.

자료상으로 볼 때 이 전투가 광주지역에서 벌어진 최후의 전투로 확인되고 있다.

4. 맺음말

1894년 청일전쟁 직후부터 1910년 국치 이후까지 전후 20여년간 지속적인 활동은 벌였던 의병은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한민족이 보여준 주체성의 精華였다. 의병은 스스로 '成敗利鈍不顧'를 천명하고, '후세에 할 말을 남기기 위해' 전장에 투신한다고 하였다. 나라의 운명이 절원통하여 놓이자 승패를 떠나 격 구축에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전장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박은식이 '나라의 경수'(國難)라 의병을 일컫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의병전쟁을 단순한 승패나 전과로 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병전쟁에 참여한 연인원은 수십만명에 이른다. 의병이 불거지던 초기에는 학식을 겸비한 양반 유생을 중심으로 규합되었으나, 항전이 격화됨에 따라 1907년 이후에는 일반 농민, 상인, 복역 군인이나 관료 등 다양한 신분 계층이 민족의 실전에 동참했다. 또, 소수의 부일대국노를 제외한다면, 비록 직접 참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심 양면으로 성전을 후원하는 '준의병'으로 전국민이 경도되어 있었다. 곧 의병전쟁은 우리 민족의 총력이 정주된 국난전쟁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의병전쟁에는 성남(광주)지역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단계와 전기의병기간에는 전국적으로 크게 성세를 떨쳤던 남한산성의 진을 끝으로 국망을 눈앞에 둔 1910년 7월까지 의병이 계속 활동하였던 것이 그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다.

1896년초에 활동하였던 남한산성의병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여주, 아전, 그리고 양정 일대의 의병세력이 연합한 대규모 의건이었다. 이 의건은 전국 의병 가운데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는 데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서울의 인후였던 남한산성을 점거하고 있던 관계로, 특히 일제의 측각을 관두서게 만들었다. 일제가 남한산성 일대

41) 위의 책, p.516.

42) 위의 책, p.537.

의 의병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면서 의군의 활동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예의주시하였던 것도 이런 까닭에서였다.

1906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전개된 중, 후기의병 시기에 들어와서도 성남(광주) 일대에서는 의병의 활동이 간단없이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활동한 의진의 편제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료상으로는 4백 명 이상의 대규모 의병부대가 1908년을 전후한 시기에 광주 각처에서 일제 군정을 상대로 치열한 교전을 지속적으로 벌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20여명 이상과 사상자를 내는 대첩전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따름이다.

끝으로 성남지역의 항민의병의 성격과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광주일대에서 활동한 수많은 여러 의병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金光善과 金光渡를 비롯해 李益三(李春三?), 徐可, 尹煥, 林文淳, 高在興, 李徽熙, 任玉汝 등이 성남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의병장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손 탐문이나 구원자료 채록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병의 근거지와 전투 유적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제 정보기록 등에서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 비교적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의 보완 검토를 통해서 의병 관련 유적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의병활동을 포함하는 '성남지역 독립운동사자료집'을 간행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항토사적 의미에서도 성남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러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모으고 간행하는 데서부터 비롯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약정토론문

문 수 진 (신구대학/한국사)

『성남지역의 의병항쟁』에 대한 박민영선생의 논문에 대하여 논평하고자 한다. 본인은 한국중세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므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식견은 부족합니다. 이 고장 성남의 향토사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바로 한국사 전반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성남시의 역사가 밀천하며 근대 이전의 체계적인 시대사 연구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남지역의 의병항쟁』도 자료가 부족하고, 또 전시대별 행정구역상 두뿔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필자는 다량면으로 자료를 섭렵하고 시대순으로 정리를 잘 하였습니다.

먼저 전기의병 즉 을미의병에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광주(성남)지역의 의병활동이 두드러졌음을 밝혀놓았다. 남한산성의진은 제천·춘천·진주·안동·홍성 의병들과 함께 전기의병을 상징하는 단위부대였다고 평가했다.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인후의 지역인 남한산성을 점거하고 명성을 떨쳤다. 남한산성의진은 거의 한달 동안이나 성을 점거한 채 서울 진공을 눈앞에 두었을 정도로 명성을 크게 떨친 의전으로 서울진공계획은 1908년 1월 13일 왕의군의 행동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한 사례와 같이 일제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만큼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남한산성의진이 이천에서 결성된 의전에서 출발하였으니, 서울에 사는 金河路·趙性學 등의 우국지사가 단발령에 격분 이천에 내려가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되고 구체적으로 활동과정과 견제 등을 밝혀놓았다. 남한산성 의병이 서울진공계획을 세웠다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중단되

었다고 하였다. 남한산성의권이 와해되는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 설을 소개하였으나 그 진위 여부와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언하지 못하였으나 지도부가 최유되거나 실패되고 김하락이나 김태권 등의 핵심 인물이 남행길에 올라 안동·경주·영덕 일대에서 김하락이 전사하는 1986년 7월까지 활발한 장기 참전을 전개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다음 성남지역의 중·후기의병활동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후의 의병을 중기로,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후의 의병을 후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의 성남지역에서의 의병활동은 자료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고민하였다. 주동자나 인원이 밝혀지지 않은 막연히 “약 2백명으로 편성된 의병이 富民의 재물을 군자금으로 확보하고 총기를 수집해 갔다.” 또는 “완전의 폭도가 유린하는 바가 되었다.”는 기록 뿐이지만 일제가 “도벌에 종사하고 있는 중이나 평온을 되찾지 못하였다.”고 한 보고를 통해서도 광주·성남일대의 의병투쟁의 고조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말의병자료』 신문 기사 등에 단편적으로 광주일대에서 일어났던 의병에 관한 기사를 모아 성남지방에서의 의병활동을 정리하는 실험을 기울였다.

결론에서 성남지역 항일의병의 성격과 의의를 밝히기 위하여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첫째, 金光熙·金光復 등의 의병장들의 실체 파악

둘째, 의병의 근거지와 전투 유적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다.

결자는 부족한 자료를 찾아 지역적·시대적인 정리를 한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욕심으로 몇가지 지적하라면

첫째, 서울 건공을 전국적으로 많은 의진들이 표방하였으나 대개의 경우 구호에만 그쳤으나 남한산성의 경우는 강력한 전략면에서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구호에만 그

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혔으면 좋겠다.

둘째, 성남지방항토사 연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의병활동을 시대순으로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더라면 도움이 되겠다.

셋째, 모든 성남지역사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남한산성 내지는 광주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늘날의 행정구역상 성남 일대에서의 의병활동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도 후기이명의 활동 중 조선총독부『독도사편집자료 暴徒史編輯資料』에서 인용한

1) 1907년 10월 광주군 돌마면 독점(獨店)에서 일단의 의병이 일제군정을 상대로 교전을 벌였다.

2) 1907년 12월 23일에는 약 20명의 의병이 광주군 대왕면 문도리에서 일제군정연합의 토벌대와 접전을 벌였다.

는 두 기록만이 현재의 성남시 권역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본다면 논제가 적합한 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지역의 의병항쟁』 약정토론문

김세빈 (하남시 문화재전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 박민영 선생님은 의병운동사를 전공한 전문가이고, 특히 광주지역의 의병운동에 대해 이미 조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한 지역의 역사를 서술할 때 중앙사의 일부분으로서, 중앙사가 중심이고 지역사가 부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중앙사가 중심이 아니고 성남 지역사로서의 의병항쟁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남문화원이 주최하는 이 학술회의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이와 같은 회의가 경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 연구의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연구를 위한 자료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빈약한 자료로는 실증적 역사를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성남의 의병항쟁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의 수집, 발굴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개인의 학자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학술회의의 경제적 개입과 더불어 성남시나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먼저 사료의 수집,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민영 선생님이 성남의 의병항쟁사를 발표하시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과 관련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제목이 <성남지역의 의병항쟁>인데, 물론 성남에서 하는 학술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발표자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주나 성남, 하남, 강동, 송파가 모두 과

거 장주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나누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주 전체의 의병항쟁을 다루되 다만 그 속에서 성남의병의 성격이나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다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꼼꼼한 자료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역시 이 지역의 의병항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의병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한산성 의병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사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실은 생략하고 지역사 차원에서 말하려고 싶은 것은 『동경조일신문』의 기사 내용에 의하면 남한산성의병 1,600명 중 1,000명이 지방병이고 600명이 농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600명이려면 전체 수 중에서 상당한 인원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다른 지역도 그러한지, 아니면 남한산성 의병만 특히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과거 남한산성은 고려시대 몽고침입으로부터 조선시대 병자호란, 오늘 다루고 있는 의병항쟁까지 많은 항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몽고침입 때에도 많은 광주민들이 항쟁을 금건희 하엿기 때문에 이후 정부에서 모든 광주민에게 요역이나 잡공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임술민란 때에도 광주민들이 서울에 올라가 함의시위를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항쟁이 혹시 이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충군장언 구면영의 경우, 그의 부친 구원조가 유민석의 세천의병에 참여하여 2대에 걸쳐 의병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의병에 참여했던 개개인의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면 성남지역의 의병운동 실체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박민영 선생님은 오늘 이 논문에서 『동경조일신문』, 『한성신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남에 포지스를 맞추어 더 많은 신문자료를 확인하면 성남에 관한 훨씬 많은 자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 지역 출신의 『분림』이나 구술자

표 등 다양한 자료를 발굴할 필요도 있고요. 물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제발표논문2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주제발표 : 서승갑 (경원대 / 한국군대사)

약정토론 : 한충섭 (성남기능대 / 국문학)

약정토론 : 정은경 (분당대진고 / 한국군대사)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서승갑 (경원대, 한국근대사)

《차 례》

1. 머리말
2. 시위운동의 내재적 조건
3. 성남지역 시위 주도층에 관한 분석
4. 성남지역 만세시위의 전개 과정
5. 맺음말

I. 머리말

일제에 항거한 성남지역민의 생존권 투쟁은 항일의식을 배양하고 국내외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등 민족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일제의 식민지 제권과정에서 보여준 도지에 대한 악탈은 한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성남지역의 농민층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각종 잡세와 중세에 집단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기존의 주체적인 행동양식을 폭력적으로 재편하려는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에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갔다.

1919년 거족적인 3.1운동은 처음에 천도교나 기독교 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고종 국장을 참례한 일단의 농촌 지식인군이 귀향하면서 운동이 본격화되어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근 지방의 운동소식과 선전문 등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기도 하였다. 성남지역의 3.1만세 시위운동은 무단통치에 반대한 정치투쟁이 결집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민중 스스로의 생존권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식민지 무단통제 철폐와 도지 분배, 가혹한 세금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민중의 의지가 일시에 분출된

것이었다. 일제의 강압통치에서 비롯된 농촌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민민층이 속출하였고 기득권을 보장받은 권일본자들에게 대한 불만 등이 가시화된 것이다.

성남지역의 1910년대 후반기 민족운동은 일제 무단통치에 정면으로 반대한 투쟁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성남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 시위운동에 관한 연구는 사건별이나 지역별로 묶어서 연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성남지역이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적 독자성이나 투쟁의 지향점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약점을 노출한 것도 사실이다. 성남은 중앙에서 주도한 해방투쟁의 발라이나 효류를 지방에 전달하거나 반대로 중앙에 전이하는 중간자적인 지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상으로 인해 성남지역은 3.1만세 시위운동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었고 일제하 무단통치에 항거하는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할 수 있었다. 성남지역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주도한 이시종, 한택봉, 한순희 등은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일제 타도를 외치면서 투쟁의 당위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것은 독립선언서의 지령 내용보다 진전된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다.

3.1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 독립의 피지를 원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식민지 재편책에 대한 민족적 거부라는 시작은 3.1운동을 이해하는 중요 관점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족모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망하면서 식민지 한국과 일본제국주의의 관점으로 이분화하는 모순을 낳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일면적인 인식 방법론은 사안의 단순성으로 인해 이해가 안일하게 이어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경우 경멸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II. 시위운동의 내재적 조건

1. 농촌경제의 동향

성남지역에서 3.1운동을 촉발시킨 요인은 일차적으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일제의

무단탈취라 할 수 있다. 일제가 형식적 학탈경제에 기초하여 식민지를 제련한 것이므로 제국주의 모순의 전가에 반대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위운동 과정에서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과격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한 일단의 반성과 농촌사회에서 일어난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결과물이 만세 시위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농촌경제에 대한 통찰을 살피는 것은 만세시위의 내적 조건을 가능케 하는 선행 작업이라 하겠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타난 1909~1911년에 걸친 광주지역의 농산물 생산액 구성을 조사해 보면 성남에 대한 지역적 특성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전체 농산물 생산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84.2%이고, 콩류가 6.1%, 보리가 5.4%를 차지하고 있다.¹⁾ 농산물 생산액 구성이 시사하는 것은 성남지역이 전형적인 농업지대로 쌀농사가 주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성남지역의 토지에 대한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일제하 식민지 농촌의 재편에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물론 양반계급에게 토지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민지 농민에게는 소유권과 경작권의 상실로 이어져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 확보책에서 시행된 것으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합리화하고 한인의 토지를 수탈한 결과가 되었다. 일제 통치에 순응한 일부 지주 계층에게 일정 부분 기득권을 보장하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였다. 반면에 근대적 토지소유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근대적 지배 방식에서 관용적으로 용납되었던 실질적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결국 형식적인 토지소유자인 지주에게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의 제반 권리를 인정하여 식민지 기생지주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은 민족공동체의 양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층 간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킨 탄압 정책의 표본이라 하겠다.

1) 京城博史, 「土地調査事業의 역사적 경제조건의 형성」, 『한국근대경제사연구』, 1983, 282쪽.
2) 강대훈, 「일제하 조선의 농민층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 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1988, 186쪽.

전국적인 지역에서 자행된 토지조사사업의 문제점은 성남지역에서 유사하게 노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남지역의 경우 지역사 연구의 진행 조건인 농민층 분해 현상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정에 의존하면서 사실에 접근하기도 한다. 일제가 강행한 토지조사사업은 결과적으로 농가의 양극분해 현상을 가속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17년 경기도 농가의 계급 구성을 살펴보면 대지주는 1.7%, 중소지주는 2.1%, 자작농은 10.0%, 자작겸 소작농은 38.8%, 소작농은 47.4%로 나타난다. 토지 소유라는 기준으로 보면 약 13.8%가 토지를 소유한 반면 순수소작농인 47.4%가 토지를 상실하여 농민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이었다. 일제에 의해 토지 소유를 추진받은 결과상의 과정에서 민족이라는 가치 기준은 구성원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제에 의해 강행된 토지조사사업은 궁극적으로 농민층 내부에 갈등 관계를 고조시키는 한편 기존의 권력 세력인 기생지주에게 일정 부분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식민지 내부의 구성원이 전통적으로 인정받은 경작권이나 점유권을 강제적으로 상실한 결과 반대급부로 야기된 불만이 민족모순으로 누적된 것이라 하겠다.

성남지역의 농민층이 몰락한 부차적인 요인은 일제가 추진한 지세령의 개정이다. 논외의 경우 35%나 토지 세율이 증가된 결과 지세가 2배 이상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세에 대한 부담이 강화된 경우 영세한 자작농은 토지를 처분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토지를 박탈당한 결과로 인해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성남지역의 농촌의 계급 구성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면 일단의 몰락 농민은 도시노동자로 전환하거나 살길을 찾아 만주나 시베리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로 진출하여 막노동자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이때 포화 상태에서 감행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일차적으로 일제의 무단통치로 인해 정치적으로 좌절당한 상실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과 지세령을 강화하는 일제의 식민지 재편책은 농민의 불만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런 결과 성남지역의 농촌 동향은 계급 구성에서 양극화가 표면화되고 자신의 토지를 박탈당한 식민지 현실로 나타난다. 성남지역의 농민층은 일제하 식민지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민중 참여의 내재적 요인

일제하 일본제국주의의 자본주의 모순이 가중되면서 경남지역의 민중들이 만세 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자본주의 모순이 식민지 사회에 전가된 것은 쌀값의騰貴로 이어졌고 빈곤에 대응한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사회의 상황은 1917년 이후 쌀 부족 현상으로 인한 농민층의 분노가 극대화되면서 폭동을 예기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었다. 쌀값 폭동의 직접적인 요인은 지구나 미곡상들이 쌀을 매점하여 사재기하는 행위이지만 일본제국주의 모순에서 파생한 식량 부족 현상을 식민지에 전가하려는 전략 때문이다.³⁾ 1918년에는 쌀값 폭동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폭동을 수반하는 상황으로 전전되었다. 1917년 전반기 쌀값이 석당 14~5원대에 머물렀으나 후반기에는 22~3원대로 등귀했다. 1918년에는 상황이 악화되어 전반기에는 26~28원대로 치솟았고 8월의 경수 한달 사이에 10원이 폭등하여 38~9원을 유지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어 1919년 1월에는 석당 40원대를 돌파한 후 2월에는 43원 57전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한 상황이었다.⁴⁾

<도표 1> 경기도 빈곤 농촌의 실태

	식량	쌀의 소비비(%)	석사원수	일석의 가격
1월	쌀, 콩, 팥, 수수	60-70	2	15-20전
2월	"	"	2	15-20전
3월	"	"	3	15전
4월	" (초곡)	40-60	3	15전
5월	" (초곡)	"	3(4)	15전
6월	보리(밭)	0-30	3-4	10-15전
7월	"	"	3-5	10-15전
8월	보리, 밀가루(쌀)	"	3-5	10전

3) 이정근,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194쪽.

4) 매일신보 1919년 2월 4일.

<도표 1>에 따르면 1914년 당시 경기도 지역과 농촌 궁핍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일제 강점 후 농산물 수확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한인 농민층은 생계 유지에 급급한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추수기 수확물은 공산물 구입 등에 소비하기 때문에 2월까지만 자급하고 이후에는 잡곡을 주식으로 한다. 6월의 경우 쌀 혼합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식사 회수는 증가하지만 하루의 식대는 줄어들고 있다. 경기도 농가는 이런 점에서 보면 식량 결핍의 현상이 상시화되어 있고 춘궁기 때 상황이 악화되어 불만이 누적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식량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농번기 출역을 약속하고 유력 농가에 식량이나 금전을 차입하기도 한다. 세방 보수 공사에 참여하거나 농장에 출역하며 임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전한 농민층은 야채작 등으로 대식하거나 식사 회수를 줄이는 감식의 방법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⁵⁾ 이와 같은 경기도 빈곤 현상은 성남지역의 농민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존 위협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존권 위협의 여건으로 인해 성남지역의 농민층은 일제 강압통치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고 만세시위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III. 성남지역 시위 주도층에 관한 분석

성남지역 만세시위를 주도한 주도층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방 유지로 활동한 지층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 만세시위 주도층은 서울의 만세시위 흐름을 민감하게 수용하여 지역민에게 계몽하는 한편 기사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했다. 만세시위의 주도층들은 극비리에 구 한국 국기를 제작하고 운동자금 모금 등도 관여한 사실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봉화시위나 횡불시위를 준비하여 민중들에게 적당권 분취기를 면출한 것도 주목된다.

다음은 성남의 인접 지역을 배경으로 시위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

5) 이여성·김세용, 「數字朝鮮研究」 1, 1931, 24쪽.

약한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한백봉 (30세 농업 돌마면 시위주도)
 한순회 (일반-광주 천도교구장,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용리)
 남태희 (나생면 초대면장)
 이시봉 (19세 농업,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
 이계순 (32세 농업-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
 장덕균 (38세 농업,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
 천중선 (46세 농업 기독교,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
 이대현 (37세 농업 구장, 광주군 정무면 교산리)

성남 돌마면의 시위운동은 농촌의 지식인층 일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런 관계로 참가자가 집중하였고 돌마면과 낙생면의 연합시위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돌마면 용리의 한백봉(韓百鳳), 한순회(韓順會)는 1919년 고종 장례식에 참여한 후 3.1운동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연대의 유지를 꾀하면서 시위운동을 모의하는 한편 낙생면 초대면장 남태희(南台熙)와도 연계하여 거사를 도모하였다. 특히 한순회가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었던 점과 면장을 지낸 남태희 등이 운동을 주도한 것은 농촌의 지식인층이 시위운동에 적극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광주군 천도교구장인 한순회가 3.1운동에 참여한 사실은 주목되어진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국권회복과 독립이 달면한 사명이라는 인식하에 독립을 성취하려는 의지력이 강하였다. 천도교인들은 독립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하는 한편 운동을 주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은 천도교가 일정 부분 시위를 주도하고 조직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한순회가 1919년 5월 16일에 관교헌병주재소에서 조서에 서명한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한순회는 양반출신으로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었으며 당시 광주군 천도교구장으로 있었다. 심문의 주내용은 1918년 10월부터 1919년 4월까지 특별 성명을 각출하여 천도교 중앙총부로 송금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한순회 조서 내용에 나타난 다음의 내용은 광주군 거주 천도교인으로 특별 성명을 제공

한 인물의 명단이다.⁶⁾

광주군 낙생면 석촌리김정봉(金定奉) 5원 50전
 낙생면 금곡리한지택(韓致伯) 11원
 대평면 오아리박무호(朴武浩) 12원 50전
 돌마면 물리한순희(韓順喜) 10원
 연주면 내곡리홍순경(洪淳敬) 18원 38전
 도천면 상인리최용운(崔龍雲) 11원
 장안면 역리홍종수(洪鍾秀) 7원 80전

만세 시위운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천도교측이 부담한 사실을 보면 중앙총부로부터 송금된 자금이 시위운동의 자금으로 전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 성금을 모으고 조직을 가동하여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결집력이지만 이와 같은 조직망을 유지한 것은 성남 만세시위의 연락망을 침착케 하는 자르라 할 수 있다.

천도교가 추구한 만세 시위운동의 지점에 대한 한계성을 고려하면 한순희의 경우 대체로 3.1운동의 지도층이 시행한 행동 형태에 준한 것이 아닌가 한다. 3.1운동 과정에서 한순희는 관고현병주재소에서 조서를 받는 정도였고 1938년 3월에 이르러 독립자금을 모금하다 피체되어 투옥되었기 때문이다. 한순희는 연락망을 유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인정되지만 종교적 한계성에 의해 폭력을 지향하지 못한 한계성을 만세시위 과정에서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천도교 요구자인 한순희의 경우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려는 성향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위운동의 발력이 현실적으로 시위운동 과정에서 민중과 결합하면서 투쟁 방향은 강경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민중이 시위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한 백봉과 이시중은 살아한 일면을 보여준다. 민중의 성향을 반영한 한백봉과 이시중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민지 모순에 반대하고 생존권을 사수하는 차원에서 민족운동을 지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국사편찬위원회, 「중인 한순희 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89, 70쪽.

7) 예국장지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950, 97쪽.

한백봉은 3월 28일 불마면 읍리에서 거주민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하고 약 50명을 집결시켜 시위운동을 촉발시켰다. 29일에는 구 한국 국기를 제작하여 휴대하고 불마면 일대에서 각 동리를 돌면서 독립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백봉은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함고하였으나 7월 9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지냈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운동을 주도하여 전면에 부각한 한백봉은 민중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동 과정에서 시위대를 선도하고 직접 투쟁하여 일제의 압제를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가 본적인 이시종(李時鍾)은 농사에 종사하던 중 순국시위에 참가한 후 대왕면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조선독립신문의 독립에 관한 기사를 가지고 수서리에 돌아와 동리의 이재순(李載淳) 등 100여 명을 규합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시종은 현병주재소원에 체포되었고 일제는 경지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보안법을 적용했다. 5월 15일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성남지역 3.1운동의 주도층은 농업 종사자와 천도교인 등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도층의 성향에 따라 실천적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천도교인의 경우 합법적인 투쟁을 지향한 반면 식민지 농촌현실을 고발하려는 주도층은 대중성에 기초하여 절대독립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IV. 성남지역 만세시위의 전개 과정

1. 시위운동의 지향점과 투쟁 대상

성남의 대왕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한 운동으로 성남지역 3·1운동의 양면을 나타내는 명백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시위의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독립과 강경 투쟁의 수단인 폭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왕면의 만세운동

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사례에 해당하
는 것으로 투쟁 주체인 농민층의 요구 조건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항면
시위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위 주도층이 민중으로 권이되면서 절대
독립의 의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항면에서 진행된 3.1만세 시위운동은 시위 목표인 민족 독립을 명확하게 설정한
것이어서 주목되어진다. 증방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에서 주도층이 보여 준 모호한
형태의 목표 의식이 좀더 구체화된 것이 성남지역 만세 시위운동의 특이성이다. 3월
25일 저녁 이시종은 대항면사무소에 집결한 군중에게 남포동을 밝힌 후 문서를 낭독
하였다. 이시종은 군중에게 “오늘까지는 이 면사무소에서 일본 일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세금 등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라는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였다.⁸⁾ 이시종의 경우 일제하의 부역과 세금에 전면 반대하면서 독립의 의지
를 명확하게 표출하고 있다. 만세 시위의 목표는 조선의 절대독립에 주안점을 두었
다는 것이다. 부역에 대한 반대 의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노동력 착취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면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성남 만세시위의 지
향점은 독립선언서 약법삼장이 내포하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권일보하여 한국의 절대
독립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남지역에서 펼쳐진 시위운동이 폭력화되면서 시위운동의 투쟁 대상도 명확하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농촌에서 진행된 만세시위는 일제에 고통한 친일분자를 타도
대상으로 하고 마을의 읍력자나 학생, 서당교사 등이 주동이 되어 일어났으나 진행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농민층이 주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만세시위에 참여한 일반
민중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참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군수·면장·관공
리·헌병보조원 등은 위협이나 강요로 인해 강제 참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⁹⁾ 성남
지역에서 펼쳐진 시위운동의 투쟁 대상은 점차적으로 면장과 면사무소에 집중된 것
이지만 근원적인 대상은 일제의 타도임을 알 수 있다.

투쟁 대상을 면장으로 설정한 경우는 중부면 산성리 만세시위 사례이다. 중부면 산

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재민기록』,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299쪽.

9) 최창희, 『충주지방의 3.1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3, 1988, 355쪽.

성리의 시위운동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부면은 동면의 면소재지로 산성리를 비롯하여 13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부면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은 성남출장소 관내 단대리·탄리·수진리 등의 동리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실제로 3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남한산에서 횡포를 밝히고 이를 선으로 하여 단대리·탄리·수진리의 주민 300여 명이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¹¹⁰ 남한산성 남문에 집결하여 시위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발발을 전환한 것은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면서 나타났다. 즉 일제에 우호적인 당시 중부면장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자 일부 시위대가 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과격 양상으로 이어졌고 헌병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관공서 습격의 내재적 요인은 대략적으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불만, 불합리한 농촌행정에 대한 불신, 과중한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 일제 무단통치에 따른 모순 등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¹¹¹ 광주군의 사례에서 보면 시위대 1,000여 명이 광주군 서부 면사무소에 습격하여 투석하자 패산시키는 과정에서 헌병이 발포하여 사람 1, 부상자 2명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¹¹² 이와 같이 시위운동의 타도대상이 면장 구타나 면사무소 투석 행위로 표출된 것은 일제 무단통치의 원형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항일이라는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일차적인 목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생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급 투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시위운동의 투쟁 양상

3.1운동의 참여 계층이나 참여 인원수를 분석해 보면 대중성을 확보한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월 29일에 광주군 낙생면과 불마면에서 전개된 시위운동은 일제가 보고한 일본외무성 육해군문서에 따르면 참여 인원이 대략 3,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¹¹³ 낙생면의 만세시위 운동은 불마면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이 특

110) 국회사서관, 「일본외무성 육해군문서」 3, 『한일전쟁기념운동사』 (三一運動 史料, 1977, 73쪽).

111) 馬淵貞利, 「제1차대전기 조선농업의 착취와 3.1운동」,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2, 1995.

112) 국회사서관, 앞의 책, 73쪽.

113) 국회사서관, 앞의 책, 368쪽.

색이다. 특히 초대면장을 역임한 남태희 등이 전면에서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3월 27일 특히 불마면 읍리에서 시작한 만세시위가 분당리 장날에 군중이 가담하면서 규모가 클대하였다. 시위대가 낙생면 소재 관교리에 도착했을 때 백현리, 운궁리, 궁내리의 군중들이 참여하면서 3,000여 명에 달한 것이다. 또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운집하는 분당리 장날인 27일을 거사일로 선택한 점 등도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 3,000여 명을 동원한 낙생 불마 시위만세 운동은 대중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 만세 시위운동의 형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무력시위와 불화시위로 전환된 것이 특색이다. 경기도의 경우 대체로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하게 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3월 초순부터 4월 하순까지 전개되었다. 경기도 지역은 시위 규모나 전개 형태의 지속성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7일 새벽에 한백봉 등은 읍리 동면 50여 명을 민솔하고 뒷산에 올라가 불화로 시위를 예고하는 등의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거사 당일 10시경 분당리 장터에서 군중이 운집하자 한백봉 등은 만세 시위를 주장하여 본격적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불마·낙생면민의 연합시위는 규모나 영향력이 컸던 것이었다. 시위운동의 주도자들은 28일에도 불화를 올리고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9일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제 헌병이 시위 군중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층 일부를 체포하자 시위는 약화되었다.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이 폭력적이고 무력을 불사한 형태로 진행되어 민중의 피지를 명확하게 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일 독립투쟁이 지속성을 꾀한 것은 항쟁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했지만 무장 반란의 체계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인의 전체층을 아울러 전국적인 규모 형태로 투쟁을 소화하기에는 계층의 이해 관계가 상이하여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족 모순의 해결을 강조하는 시위 주도층은 계급 모순의 해결을 주장하려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한 것이었다.

시위운동의 과정에서 일제의 대응책이 미온적이고 방관적이었다는 일단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극단적인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었으므로 미온적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는 최고조에 달한 시위운동을 피하려는 슬책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슬책은 시위 주도층인 한백봉 등 수 십명을 29

임에 제포하여 관교현경주제소에 연행한 후 남한산성 용인현병분견대 광주분전소에 이송하여 4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대응 조치로 인해 당시 시위운동이 폭력적으로 전환되지 못하였고 독립운동을 고령하는 단계에 머물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대부분의 인사들은 발면되었으나 한백봉은 강성지방법원 수원지청을 거쳐 서대문감옥에 이감되었다. 이어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1920년 4월 28일에 만기 출옥하였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이틀날 현병주제소원에 피제되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여 군중을 선동함으로써 치안질서를 방해했다는 보안법을 적용했다. 5월 15일 재판 결과 이시종은 징역 1년, 이재순은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대량면 시위운동은 일제의 가혹한 부역과 세금에 반대한 운동으로 일제 타도와 일대독립을 전방하였다. 대량면의 반세운동은 일제의 부역 징발과 토지 수탈에 반대하여 민족의 의지를 반영한 독립투쟁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췌불 시위운동은 4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경기도의 경우 일제 경찰력과 무력충돌이 70회 정도였으며 살해자는 104명, 부상자 190여 명, 피제포자가 약 1,350명을 상회한다는 수치를 감안하면 이 지역의 독립운동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지역의 시위 형태는 대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평화적 시위에서부터 밤에 산에서 췌불과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는 췌불시위, 곤봉을 들고 투석하는 췌위, 관공서 등을 약화 공격하는 무력시위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V. 맺음말

성남지역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의지를 보여 준 운동이었다. 일정 부분 한계점을 노렸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일제의 고압한 전술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성남지역의 독립운동은 중부에서 남부지역과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성남지역에서 민족운동은 전민족 항일투쟁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며 일제의 무단통치에 반대하여 직접 투쟁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토지를 상실한 소작농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남지역민들은 1918년 쌀값의 앙등과 농촌경제 파탄으로 인해 잡압몰치에 불만이 누적되었고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특히 식민지 농촌에서는 궁핍 상황이 심화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 생존에 위협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3.1운동의 잠재적 동인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역량을 강화한 것은 주도층의 역할이었다. 천도교의 조직력을 기본 토대로 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결합되면서 시위운동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시위운동의 주도층은 조직과 제제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한 천도교 농촌 유지층과 대중에 기초하며 식민지 농촌현실에 대해 항거한 지도자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성남지역 독립운동가인 한순희는 천도교 교구장으로 합법적인 공간에서 운동을 주도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한 것에 해당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성남지역 만세 시위운동의 주도층이 대중에게 전이되면서 부상한 지도층이다. 이시종과 한택봉은 식민지 농촌의 모순을 폭로하여 대중에게 호소하고 절대독립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에 주력했다.

주도층의 전략과 대중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성남지역의 독립 시위운동은 대중성과 무력시위 양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 봉화시위나 햇불시위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대중이 집결하는 장남을 기해 독립 시위운동을 전개한 전략은 효율적이었다. 낙생과 불마면의 연합시위에서 3천 여명이 참여한 사실은 대중성을 확보한 것으로 농민층이 요구하는 식민지 모순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대항면 이시종의 사례는 시위 지향점의 경우 독립선언서 악법상장이 내포하는 포괄적인 내용에서 전일보하여 식민지 폭력에 반대하고 절대독립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결과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은 독립선언서의 지침보다 실천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성남지역의 3.1운동은 일부 천원분자의 반민족 행위를 아우르고 통합하여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이 특징이다. 만강이나 천원분자들이 만세시위에 동참한 사례는 민족모순을 일제 타도와 등치시켜 투쟁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만세시위의 과정에서 식민지 농촌현실을 고발하려는 농민층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계급모순의 일단인 일제 탄압책을 폭로한 것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약정토론문

한준섭(성남기독교대학/국문학, 향토사학)

발표자 서승갑 교수는 일찍이 성남지역에서 발발된 1919년 3월 만세운동에 관하여 논급한 적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주제발표는 우리 향토사 자료 탐구에 도움이 되는 연구로 높이 평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걸렸던 사료를 새 근거로 하여 검증 분석한 필경에 대하여 '역사 바로 찾기'의 선구자적인 성과를 거두었기에, 특히 향토사학을 공부하는 본인에게 좋은 본보기 연구라고 생각되어 찬사를 표하겠습니다. 더구나, 일제 무단통치에 반대로 나선 천도교 농촌 유지층이 절대독립 의지를 천명한 사실을 밝히신 권여라든가 대중집결의 유리했던 장남을 기때 전략적으로 의검부검에 몸으로 보여주었다는 필문은 천만다행한 자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토론 처지에서 몇 가지 의문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해결을 위한 발표자의 견해 한 가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일제 강점기하 1919년 3월 이후 근 1년 동안의 국내외로 파급된 저속적 항전에 있어 그 역사적 의의는 대단히 큼니다. 민족대표 33인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이 항전에 동참했던 48인이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항일 민족해방 운동에 불을 지핀 셈이 되었습니다만, 제2단계라고 말하는 학생, 종교인, 지식인, 노동자, 농민, 상인 등 각계 각층 지도자들에 의한 전국주요도시와 농촌지방으로 확산된 비밀결사에 의한 연결 고리가 어떤 경로였는지, 구체적 연구라든가 재관기록이 얼마나 찾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유사 이래 초유의 국권상실 수모를 당하게 됐던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가

혹한 생존권 박탈로 인한 정치단암, 생활경제 악화, 문화 말살, 사회적 차별 등을 근 10년 동안 겪게 되면서 성남지역은 토지를 상실한 소작 농민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식민지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으로 만세시위가 발생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또 다른 독립투쟁 사례는 있었는지? 있었다면 앞으로 그 자료조사는 어떤 경로에 의해 간증하겠는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우리 민족의 3.1운동 독립 항전 의의에 관한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 역사학적 소위 진보적 연구자들은 한국 근대사의 원점을 동학농민혁명(?)에다 미정하고, 3.1운동도 그 연장선상에 세워 놓아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논리가 타당한 것인지 간략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로서는 우리 고장의 예국선조들에 관한 자료조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발표자에게 할한 제안이 아닙니다. 매년 문화적 행사로 거행되고 있는 <성남 3.1운동 추모식>과 관련하여 자료뿐 내지 추모탑 건립 요청에도 범 시민 차원에서 관심양면 협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생, 물마면의 연합시위에서 3천여 명 주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일본 귀무성 육해군 문서속에 의한 새 사실면으로도 새삼 놀라운 바입니다. 이 같은 성남지역의 만세 시위운동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후대를 우리의 시민의식은 웅담,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지역 3·1운동의 특성」 약정토론문

정은경(분당대진고등학교/한국근대사)

일제에 항거하는 계몽운동과 의병전쟁을 계승·발전시켜 191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지력이 일시에 분출되었던 것이 바로 삼일운동이었다. 온 민중들이 치열하게 저항했던 만세시위운동은 이후 국내외 민족해방운동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성남지역의 경우, 3·1운동을 주도하였던 한석봉·한순회·이대현이 이후 성남지역의 민족해방운동단체였던 신간회를 이끌어가는 사실상 중심인물이었던 것도 이러한 계기적 발전론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3·1운동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발전단계에서 기록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번에 발표하신 시승갑선생님의 논문은 성남지역의 곳곳에서 일어났던 3·1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잘 밝혀내었다. 특히 각 종의 운동양상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기 보다는, 발생원인과 참가계층, 투쟁양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성남지역의 3·1운동의 특성을 도출해내는 분석틀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남지역 농민들의 존재양태를 분석함으로써 3·1운동 직전에 농민들이 처한 계급적·민족적 모순을 밝히 운동의 지향점을 추적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지역사 연구는 으레 자료부족이란 한계상 때문에 제대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좌후 성남지역의 3·1운동연구에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진다. 다만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여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짚어내는 것으로 약정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의 주제인 성남지역의 3·1운동이 지닌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는 타지역 운동과의 비교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

에서는 성남지역의 특징으로서, 만세시위운동의 지향점이 독립선언서 약법삼장이 내포하는 보편적 내용에서 전일보하며 한국의 절대독립을 요구한 점, 학생들의 만세시위운동이 돌아면과 연합하여 전개되었다는 점, 농업지식인 계층과 천도교인이 주도한 점 등을 밝혀놓았지만, 이같은 양상들은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전국의 3·1운동 파급현황을 보면 기독교·천도교의 교세가 성한 지역이거나 민족대표의 출신지 또는 근거지에 먼저 독립선언서가 채택, 계획이 선행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3·1운동이 발생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도 지역은 천도교·기독교가 강세인 지역은 아니었지만, 이들 종교단체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천군의 만세시위가 천도교인에 의해 주도된 반면, 개성, 강화군, 양주군, 연천군 등지에선 기독교인이 주도하였으며, 3월 18일 강화도 시위나 화성군 향남면 발안시위, 화성군 우정면·정안면의 시위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형태로 주도되었다.

서울의 3·1운동이 지방으로 파급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장남을 이용하였던 것도 전국적 현상이었다. 또한 운동이 확대되어가던 3월 말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면단위간의 연대투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원군 장안면·무정면, 안성군 원곡면·양성면, 개성군 살도면·대성면, 이천군의 7개면의 연합시위 등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 투쟁 형태도 역시 경기도 3·1운동에서는 3월 하순부터 적극적인 대중투쟁의 양상으로 전환되어갔으며,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만세운동이 경기도에서 벌어졌다. 성남지역 역시 그러한 투쟁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며 볼 때 성남지역의 3·1운동은 경기도 지역 3·1운동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보여진다.

둘째, 성남지역 독립운동은 중부에서 남부지역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 논문은 파악하고 있다. 성남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흔히 운동이 지방으로 파급되었을 때 매개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파악되기 쉽다. 이같은 인식이 3·1운동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韓國獨立運動史』(2권,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각 지역의 3·1운동 발생일자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함북 : 삼천(3월 10일)
 함남 : 원산(3월 1일), 함흥(3월 3일), 영흥(3월 3일), 평정·북청(3월 7일)
 평북 : 선천·리주·경주(3월 1일), 선천(3월 2일), 비현·신의주·통천(3월 3일)
 평남 : 평양·진남포·안주(3월 1일), 살원·용강·강서·중산(3월 2일), 순천·사천(3월 3일)
 황해 : 황주(3월 2일), 해주·동진·사리원·수안(3월 3일)
 경기 : 개성·고양(3월 3일), 인천(3월 9일), 양평(3월 10일), 평택·안성(3월 11일)
 충북 : 괴산(3월 19일), 금화(3월 3일)
 충남 : 예산(3월 3일), 부여(3월 7일), 장령(3월 10일)
 강원 : 평강(3월 2일), 철원(3월 10일)
 전북 : 옥구(3월 4일), 군산(3월 5일), 임실(3월 10일), 진주(3월 13일)
 경북 : 대구·비안·김천·안동·영덕·선산·의성(3월 9일)
 경남 : 부산·마산·창녕·진주·상가·초지·함양(3월 11일)

성남지역의 3·1운동이 3월 하순에 발생하였던 것과 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중부나 남부지역의 3·1운동이 성남지역보다 먼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3·1운동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중부→남부라는 도식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왜 성남지역의 3·1운동이 3월 27일경에 발생하였는지 그 직접적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농민층의 내재적 모순만으로는 운동의 발생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때 어떠한 직접적 계기가 마련되었는지의 규명이 좀 더 필요하다. 즉 성남지역에 3·1운동이 파악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인맥이나 사상의 계보 추적 등이 보다 밝혀져야 할 것이다. 풀다면 한백봉·한순희의 고종 장례식(3월 3일) 참석이단 요인 이외에도 3월 하순 서울지역의 동향은 그 시사점을 던져준다. 3월 22일 서울 남대문에서 노동자, 학생 중심으로 개최된 노동자 대회 이후로 서울지역의 시위운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3월 26일, 27일에는 필경에 달해 27일 하루동안 20여회의 운동이 발생할 정도로 격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인근지역

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성남지역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성남지역 3·1운동역전 면장이나 권일분자들이 만세시위에 동참함으로써 일부 권일분자의 반민족 행위를 아우르고 통합하여 새로운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한 권일분자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을 지칭하는지 논문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일제말단 통치 기구에 편입된 면장을 가리키는 듯하다. 면장을 관 권일분자로 통식화시킬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각 지역 면장의 특성을 동일화시켜서도 안된다.

3월 하순 이후 경기도 3·1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운동이 道廳 단위로 조직화되고, 이에 면장·이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면장·이장들이 모든 지역에서 3·1운동 추경에서 동일한 대응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중부면에서는 시위대에 구타당한 면장은 일제에 우호적이었지만, 낙생면과 돌마면의 연합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남태희(초대면장), 광주군 동부면 고산리 이대현(구장), 광주군 동부면 말월리의 김교영,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의 홍면선,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의 안중규,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의 이덕균, 한성군 일죽면 주천리의 박대용 등등은 만세시위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던 면장·이장들이었다. 별다른 종교적, 이념적 조직체계가 없었던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면리장이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같은 점은 통일적 지도책심이 없어 면리별로 시위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던 원인의 일단이기도 하였다.

주제발표논문3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주제 발표 : 한상도 (전국대 / 한국근대사)

약정토론 : 장석홍 (국민대 / 한국근대사)

약정토론 : 조재곤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한국근대사)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한상도(건국대 사학과 교수)

《자 례》

1. 머리말
2. 학생운동
3. 청년운동
4. 광주수리조합원의 자주권 수호운동
5. 신간회 지회 활동
6. 노동운동
7. 맺음말

1. 머리말

현재 성남지역의 전신인 廣州郡은 조선왕조의 수도와 이웃한 관제로 중앙정치무대의 상황변화에 민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또한 이같은 성남지역의 지경학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였다.¹⁾

일제하 성남지역을 무대로 한 항일민족운동은 서울에서 전개되는 운동의 흐름으로부터 격차없이 영향받았을뿐 만아니라, 역으로 서울을 활동범위의 일부로 포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을 살피는 일은 일제하 광주군이라는

1) 기본적으로 성남시는 1973년 이후의 명칭이므로, 현재의 성남시라는 행정구역 내에서 일제 식민적시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은 성남시의 이전이었던 광주군의 그것에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1973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은 성남시와 광주군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 파악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전개된 지방사로서의 측면과 아울러, 반제·반일 근대민족운동의 보편적 흐름 가운데에서의 성남지역 항일민족운동이라는 개별사를 파악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도 일제하 성남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항일민족운동이 갖는 지방사적 의의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2. 학생운동

1921년 8월 광주공립보통학교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났는데, 이는 민족적 차별에 대한 항거였다. 4학년생 황추호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서다가 벌어진 연필을 찾으려다, 일본인 목수 오케구치(横口國市)라는 자로부터 구타당하여 실신하였다. 학생들이 모여들자, 일본인 목수는 삼을 휘둘러 학생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큰 소동이 일어났다.²⁾

2)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성적으로는, 백남옥 저, 『해방운동 고찰기의 성남지역 민족운동』,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성남문화원, 2001 ; 서승갑, 『일제강점기 성남지역의 노동운동』, 『성남문화연구』 9, 성남문화원주최 향토문화연구소, 2002가 대표적이다.

3) 이밖의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접근한 성남의 광주지역관련 자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백봉·한순희(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9, 1993, 130·179쪽), 이대현(『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6, 1993, 25쪽) 등 중심인물의 석대문형무소 수감카드를 전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활동사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신문조서나 재판기록 등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미같은 제약으로 인하여 성남의 광주지역에 대한 연구작업은 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광주공립보통학교 사건'의 중심인물인 석대환(『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4, 1992, 383쪽), 정일배(『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7, 1993, 490쪽), 김충준(『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1992, 258쪽), 구본룡·구자룡·구합서(『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1991, 216·225·227쪽)의 수감카드의 이미 공개되었으나, 이들의 신문조서나 재판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히 이 장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 중인 정일배의 가족목판제 서류를 입수할 수 있었다.

4) 참고로 1927년 당시, 광주군의 총호수는 1571가구, 인구는 8354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일본인이 97가구·357명, 중국인이 2가구·18명, 한국인이 16613가구·83180명(남 42884, 여 40296명)이었다(『東亞日報』, 1927년 6월 29일).

그러나 일제정황은 흔제만 하고 일본인 복수를 석방하였다. 학생들은 일본인 복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8월 29일 집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교장은 일본인 복수를 두둔하였고, 이에 학생들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8월 30일 일 양일간 학부형들이 모여, 선후책을 강구한 결과, 일본인 복수를 제수감시키기로 함으로써, 상황은 진정되기에 이르렀다.⁵⁾

일제정황 및 학교 당국의 무성의한 조치는 민족적 편견과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예였다. 당시가 이른바 '文化統治'의 선전아래 한국인에 대한 회유와 동화정책이 일제의 한국통치방침으로 표방되고 있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문화통치'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 동맹휴학은 대부분 민족차별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장 및 교사를 배척하기 위함이 주된인이었고, 시설개선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한인학생에 대한 부당한 구타와 민족차별적인 비교육적 언행, 무성의한 수업진행, 부실한 학교운영 등도 주요한 원인이었다. 한인교사에 대한 자질 시비도 발생하였지만, 주로 일본인 교장이나 교사에 대한 배척문제에 집중되었다.⁶⁾

3. 청년운동

일제하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청년운동단체로는 廣州中央青年會(1925년 읍내에서 창립)·廣州青年會(송파 소재)·新廣青年會(1928년 봄 광주면 新沙里에서 조직)·南漢山俱樂部(1910년대 말 창립 주장) 등을 꼽을 수 있다.⁷⁾

그런데 청년운동단체 창립의 필요성은 1920년대 전반기부터 제기되었던 것 같다. 이른바 '문화통치'를 배경으로, 농촌계몽운동 및 실학양성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文滄奎라는 필자는 청년회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글을 신문에 투고 하였다.

5) 『朝鮮日報』 1921년 9월 2·3·5일.

6) 경기도사관문화위원회, 『경기도행정독립운동사』, 1996, 743쪽.

7) 광주군지권찬위원회, 『廣州郡誌』, 1900, 339쪽.

(광주는, 필자) 16만 형제자매의 동일한 주 소이건만, 청년세군의 일정한 단합하는 조직이 없으며, ... 우리사회의 생명은 그대들이며, 우리사회의 운명은 그대들에게 있다. 우리사회가 광대에 유망하고 우리사회에 희망이 있다 함은 그대들의 광대가 유망하고 희망이 많은 까닭이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사회의 운명은 그대들의 두 어깨에 달려있는 줄 길이 각오하여라. ...

광주청년 세군이여 각성하시오. — 만약 집안을 이루(교자 하)는 사람이 단합을 하지 못하면 그 집안을 성립하지 못할 것이며, 사회를 이루(교자 하)는 사람이 일하지 못하면 그 사회를 이루지 못하며, 국가를 이루(교자 하)는 사람이 단합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청년세군들아, 우리의 책임은 귀하고 중하다. 우리는 각각 자기의 귀중한 책임을 자각하고 열심히 건전하여, 청년세군들이 단합일치하여 문화의 개발할만한 기관을 설립하여, 우리도 광대에 과학으로나 실업으로나 남보다 학수가 아니되겠다는 자발적 정신으로 廣州青年會 건설을 (희배) 노력하시오.⁸⁾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결실로서 청년회가 극작 건설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1936년 광주중앙청년회의 결성은 이같은 청년회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배경으로 하였을 것이며, 선행조직으로서 광주군내에서 설립되었던 여러가지 명칭의 분산적이고 개별적인 청년조직의 기반 위에서 결성이 가능하였을 것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 청년운동단체의 활동은 야학회·강연회·모론회와 체육·연예·오락·산업장려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야학회는 연령이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30명에서 많게는 3·400명씩 모아 무료로 가르쳤다. 강연회는 '현대청년의 변민' '소비절약과 물산장려에 대하여' '여자교육의 필요' 등의 제목이 압시화듯이, 근대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반민중을 교화계몽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연사로는 교사·기자·목사·의사·일본유학생·전문학교 재학생·사회단체 간부 등이 참여하였다.⁹⁾

8) 『朝鮮日報』, 1932년 12월 18일.

9) 『경기도청일목립운동사』, 801쪽.

이와 함께 1926년 9월 27일 廣州女子青年會는 정기총회를 열어, 규칙을 재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파악되지 않는다.¹⁰⁾

1927년 11월 廣州區 荷潭里에서는 수 년간 은밀해 오던 夜學을 少年會로 발전시켰다. 즉 정명운·오현식·이재현 등은 소년회의 조직을 발기하고, 11월 24일 야학의 운영을 소년회로 이관하였다.¹¹⁾

1928년 8월 14일 팜 천도고공리현에서는 廣州少年會 발기총회가 개최되어, 26일 창립총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¹²⁾ 이 밖에 1925년 경에 이미 南漢少年會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¹³⁾

4. 광주수리조합원의 자주권 수호운동

1927년 7월 26일 本郡農事事務所에서는 廣州水利組合 제1회 평의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는 광주군민의 근대시민의식 나아가 일제 식민지배기구에 대한 저항과 자주의식을 대변하고 있었다. 회의의 결과를 살펴 보면, 당시 광주군 당국은 광주수리조합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공사감독 및 제반 사무를 領事土地改良會社라는 일제 화수인에게 위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평의원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에 평의원을 중심으로 한 합석 지주 및 농민들은 “우리의 사업인만큼 우리가 책임감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광주군의 일본인 내무부장과 농무과장의 계획을 제지하였다. “공기는 점차 긴장하여 평의원 대 당국자 간에 반대와 권고로 안색을 붉히”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급기야 방청 중이던 지주 50여 명이 연서로 “본 조합 설립의 정신은 근년 수미재민 구제책에 전혀 정신이 있는” 것이므로, 광주군의

10) 『東亞日報』, 1926년 10월 1일.

11) 소년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의 교사는 鄭世雲·李龍賢·吳康錫·李和彬·李康淳이었고, 교육과목은 우리말·算術·習字였다고 한다(『朝鮮日報』, 1927년 11월 30일).

12) 『東亞日報』, 1928년 8월 20일.

13) 추송할 1906년의 광주공산당협의회에 활동인물인 정영배 가솔육권제 서류에는, 정영배가 14세(1925년) 경부터 “南漢少年會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不規則에 재급의식을 함양하였다”고 기록하였다(『(정영배)가솔육권제서류』, 000335쪽).

발원을 거부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국면으로 진전되었다. 평의원들도 “한층 전고한 결심으로 직영을 주장함예,” “내부국장은 권고를 따가 못하여 드디어 불안한 안색으로 歸國하니, 이에 평의원 제리와 발성적으로부터는 더욱 불안의 공기가 농후하여, 자기사업을 자기가 한다는데, 타인에게 대행시키려는 무리한 권고는 절대 容許치 못하겠다는 反對聲으로, 드디어 多大數 加算로써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¹⁴⁾

그런데 “우리의 사업일만큼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군면의 自己意志로 대변되듯이, 일제 식민지화 달성과 광주군면 간의 이해 대립은 2년이 지난 1929년 말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劉仁穆이라는 송파지국 기자의 특별취재 형식으로 보도된 「廣州水利組合의 그 經過와 由來」 기사에서는

이 수리조합 공사는 토지재향주식회사에게 대행을 시키라고 단도 직입적으로 强請함으로, 이것을 본 일반지주와 주민들은 그 할 수 없는 도청당국 심리를 嘆息하며, 이 수리조합의 근본목적이 利便住民을 구제함이 목적으로, 우리의 토지인만치 우리가 직영하겠다는 것으로 대행을 반대한다거니, 대행을 시키지 않으면 도청 당국으로서는 절대 공사를 시키지 않는다더니 하여 도청과 지주 사이에 알곡이 생겨, 그 파란장렬한 사이에 ... 그해가 지나고 이듬해인 즉 작년까지 공사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고 적었다.¹⁵⁾ 일간지의 사회면을 장식할 정도로, 이 사건은 사회적 이목과 관심을 끌었다. 2년 여라는 짧은기간 동안 농민들은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주장 하에 단결력을 과시하며, 식민지배기관에 맞섰던 것이다. 이는 광주군면들의 한식민지 자주·자립 自我意識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광주군면의 항일대중운동은 이같은 주민의식과 선진적인 사회의식의 기반 위에서 실천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비타협적 자주의식은 신간회 지회활동에서도 그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14) 『朝鮮日報』 1927년 8월 2일.

15) 『朝鮮日報』 1929년 12월 25일.

5. 신간회 지회 활동

신간회 활동에 있어서, 지회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였다. '독립'을 공공연하게 내걸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의 축을 지회에 설정하고, 농민대중의 역량을 결집하여 일제 말단지배기구와 투쟁해야 한다는 논의¹⁸⁹는 대량투쟁의 선도기구로서 또 대량투쟁을 지휘하는 연락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 활동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광주지역의 신간회 지회 조직 움직임이 대동한 시기는 1927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였다.¹⁹⁰ 당시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중앙청년회·송과광주청년회·광명청년회·전통청년회·노동공제회와, 조선일보·광복일보·조선농민사 지국 등이 지역운동을 이끌었다.¹⁹¹ 이 중 송과청년회가 신간회 지회 설립을 주도하였다.¹⁹² 그런데 지회의 설립준비가 단체 혹은 단체간의 연합으로 맡기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청년·노동·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의미하며, 이들 단체의 중심은 대체로 청년단체였다.¹⁹³

8월 24일 오후 1시 반 남한산성 노동공조회관에서 신간회 광주지회 설립대회가 개최되었다. 비슷한 시기 개성·홍성·봉화·안동·영양·영주·거제도·남원·영암·완도지회가 설립되었다. 경기도에서는 10월에 수원, 11월에 안성, 12월에 인천지회가

189 이러한 주장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高麗漢, 「현단계에 조선 맑스주의자의 임무」, 『國際政』 제2권 제1호, 1929년 4월, 17-18쪽에서는 "신간회가 전인민 자체의 투쟁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투쟁은 정치기구의 확립과 - 지배계급과 인민의 직접적인 접촉면인 報·面·露 등의 행정단위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 대중은 行政, 面行政, 露行政을 통해서 지배권력을 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이와같은 행정단위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 따라서 투쟁력을 이와 같은 행정단위에 집중 통일하는 것에 우리의 全注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朴野眞樹, 「新韓會運動에 관한 학간의 問題」, 스탈라피노·이경희 외, 『新韓會研究』, 동년, 105쪽에서 제언을).

190 당시 신문은 "광주군에서는 특히 격벽지 일기로 조선민중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조선민족단일체인 신간회 지회를 설치코자 임시사무소를 송과중앙청년회 내에 설치하고, 광주 일원을 통하여 회원모집 및 계반 준비에 분방 중이더라"고 보도하였다(『朝鮮日報』, 1927년 7월 10일).

191 『朝鮮日報』, 1927년 7월 10일.

192 『朝鮮日報』, 1927년 7월 11일에 의하면, 신간회 지회 설립을 위한 임시사무소가 松坡中央青年會 내에 설치되어, "광주 일원을 통하여 회원모집 및 계반 준비에 분방 중"이었다고 한다.

193 이보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85.

설립되었다.²¹⁾

韓順會의 사회로 시작된 설립대회는 한순회를 임시의장에, 卞重熙를 서기로 선임하였다. 대회는 경과보고를 거쳐, 규약과 강령을 통과시킨 다음, 회장: 한순회, 부회장: 石惠煥, 총무간사: 俞仁穆·韓哲基·韓百福·金尚煥·許苑(範?), 상무간사: 변중회·黃秋浩·洪淳錫·李範莊 외 1인, 간사: 具重達·李祺休·李容禧·朴泰遠·金仕奎를 선임하였다.²²⁾ 회장과 부회장은 대개 추대에 의해 선출되었고, 간사의 경우도 권형위원들이 호명한 인물을 박수로 인준하였다. 각 부서 담당자는 간사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²³⁾

그런데 1927년 2월 15일 창립시기 신간회 강령은,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제당국의 허가를 얻기 위한 해리가 잘라 있으면서도,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 신간회 본부에서 정한 규약에 따르면, 지회는 회원이 30명이상 되어야 설립될 수 있었고, 모든 사무는 본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했다. 기구는 본부와 동일하였으나, 일부 생략될 수도 있었다. 최고기관은 지회대회였는데, 회원 한 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지회 예산의 십사 결정과 본부대표위원과 지회 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었다. 회원의 회비 중 2/3는 지회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1/3은 본부 운영경비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회비 징수가 원활치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고, 發起人의 義捐 혹은 행면에 따른 義務金 납입 등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유지회 同情金 관조 등으로 충당하였는데,²⁴⁾ 광주지회의 경우도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지회는 돌마면출신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지회장 한순회의 활동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3·1운동에 참가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원도로 광주교구장을 거쳐, 중앙총부 중앙위원과 奉還 등을 역임하였다. 광주주교구장 재직시에는 이천·여주·원주·음성 등지의 활동도 주관하였다. 아울러 전국 순회강연을 통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삼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보내기도

21) 위의 책, 234쪽.

22) 『朝鮮日報』, 1927년 8월 29일 및 『東亞日報』, 1927년 8월 27일.

23) 이관양, 앞서 책, 263쪽.

24) 위의 책, 227·227쪽.

하였다. 백일기도회 등의 강론에서는 “개같은 패적놈들을 하룻밤새에 무찌르고 우리나라의 운세를 세상에 떨치겠다”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한다. 1938년 일제에 체포되어 70여일간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²⁵⁾

1927년 12월 15일에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만주지역 한인들의 실태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²⁶⁾ 1928년 12월 27일 광주지회 회관에서는 제3회 정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임시의장 한순희와 서기 변중희의 주도 하에, 문명퇴치·소비조합 설치·미신다파·회원모집·회비 등을 주의제로 토의하였다. 이어서 임권재선을 단행하여, 지회장 석해환, 부회장 한순희, 간사 변중희·이기영·유인목·홍순식·한백호·한철기·李根鶴·김세풍·韓良燮·趙濟謫·황추호·한백봉·李根海·李源玉·이용호를 선임하였다. 아울러 선간의 중앙대회에 출석할 대표로 한백호와 변중희를, 후보대표로 이기영을 지명하였다.

오후 7시부터는 제1회 간사회가 열려, [사무부] 총무간사: 한철기, 상무간사: 연세홍, 간사: 이근용, [재무부] 총무간사: 이기영, 상무간사: 홍순식, 간사: 이근학,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변중희, 상무간사: 한백호, 간사: 이연옥,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유인목, 상무간사: 유망실, 간사: 김세풍,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이용호, 상무간사: 황추호, 간사: 韓百鳳 등, 각 부서 임원을 선출하였다.²⁷⁾

선간회 광주지회의 구체적인 활동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당시 선간회의 주요활동에 순회강연 실시, 웅변대회와 연설회 개최, 노동야학 활동 참여, 교양강좌 실시 등을 통한 계몽운동을 비롯하여, 소작분규에 대한 조사,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폐지운동,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철폐에 대한 지향, 유림에 대한 견제, 한국인 본위의 교육요구, 권력 및 경찰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경고활동 등이었던 사실과²⁸⁾ 활동부서의 명칭 등으로 미루어 보아, 광주지회의 활동도 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929년 8월 8일 오후 임시대회가 소집되었다. 임시의장에 한순희, 서기에 변중희가 선임되어 새로운 규약에 의하여, 집행위원장에 유인목, 집행위원에 이기영·한철기·

25) 성남시사편찬위원회, 『城南市史』, 1993, 264~265쪽.

26) 『중외日報』, 1927년 12월 23일, 서순갑, 앞의 글, 121~122쪽에서 재인용.

27) 『朝鮮日報』, 1928년 12월 27일.

28) 이근영, 앞의 책, 265~267쪽.

유양섭·이용호·김세중·박태원·황추호·黃萬浩·이근학·林炳斗·韓振會·金正恩·韓尙業·金斗休·변종희·홍순석, 후보위원에 金東植·李柱錫·김상환, 감사위원장에 한순희, 감사위원에 식혜환을 선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어서 오후 6시경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부] 부장: 이기영, 부원: 박태원, [재정부] 부장: 한철기, 부원: 홍순석·이근학, [조사부] 부장: 김정은, 부원: 김두영, [선전부] 부장: 김상업, 부원: 황추호·김세중, [조직부] 부장: 임병두, 부원: 韓國會·한진희, [체육부] 부장: 변종희, 부원: 유양섭, [출판부] 부장: 이용호, 부원: 황만호 등의 부서를 분담하였다.²⁹⁾

임재자표는 신간회 지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지방에 있어 정밀 한인주회자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은 거의 이회(신간회에) 가입하였다. 또 집회나 피원 권유 시의 언동을 종합할 때, 운동의 최종목표는 한국의 독립에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 만만이나 지방행정·지사문제 등에 대해서도 극히 개입하며, 항상 움직임을 선동하며, (일제당국과의) 분규를 확대시키기에 힘쓰고,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민족적 반항의 원인으로 삼고 있어, 지방의 연임을 악화시키고 있음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³⁰⁾

1931년 상반기 신간회 중앙 및 각 지회가 해소를 선언하기 시작하면서, 광주지회의 활동도 최후 국면에 접어들었고, 신간회 광주지회를 구심점으로 축적된 운동역량은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이라는 사회·정치적 국면을 배경으로 하며,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공산당협의회 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6. 노동운동

성남지역의 노동운동은 도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취약한 공업구조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리고 영동포 일대 공업지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광채적인 농업지대로 존재하

29) 『朝鮮日報』, 1929년 8월 13일.

30) 경상북도경찰부, 『高等警察叢史』, 1934, 50쪽.

었다. 때문에 일제하 성남지역의 노동자는 自由勞動者가 다수를 차지하였다.³¹⁾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조건을 배경으로 자유노동자를 주력으로 한 노동운동의 환경은 이 지역 노동자의 시대와 계급 모순에 대한 불만을 고양시켰을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편익옹호와 주장을 응집·대변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남한노동공조회가 결성되었을 것이고, 한 걸음 나아가 광주공동조합과 광주공산당협의회로 결성으로 진전되었을 것이다.

1930년 石惠煥·鄭永培 등은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를 무대로 南漢勞動共助會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노동자·농민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등, 의식화 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일제에 적발됨에 따라 지하활동으로 전환하였다. 1933년 이들은 廣州共同組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 강화를 도모하였다. 광주공동조합은 성남지역이 수출업 위주의 공업기반에 기초한 관계로 조직활동 범위가 협소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서 광주지역으로 조직범위를 확대한 것은 계층적인 노동조직 체계로 규합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분산적이고 대중과 유리된 조직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는 셈이다.³²⁾

1934년 12월 석혜환 등은 廣州共產黨協議會로 조직을 개편하고, 노동야학 등을 통하여 투쟁역량을 확대해 갔다. 이들은 명동포와 인천 등지의 산업중심지로 세력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과업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1936년 1월 석혜환·정영태·김종중·구본홍·구자홍·구광서·이경제 등이 '비밀결사 조직' 혐의로 체포됨으로써瓦解되었다.³³⁾

31) 서승갑, 앞의 글, 130쪽.

32) 허지 글, 125쪽.

33) 「(鄭永培)출신家關係圖解」, 『대한민국정부 사기 1938년도 行刊 제230번』, 『부록記錄 제222호 八』, 경무기록보관소 소장자료에 기재된 참여인물들의 산성은 다음과 같다. [石惠煥] 46세, 무직, 본적 및 거주지: 廣州郡 中津面 山城里 497번지, [鄭永培] 일명: 永漢, 25세, 자진자 수선업, 본적 및 거주지: 중부면 산성리 138번지, [金興福] 35세, 평원, 본적: 중부면 산성리 238번지, 거주지: 龜尾郡 西二面 安義里 金乙福 里, [具本興] 농업 위 중개업, 30세, 본적 및 거주지: 서부면 洞村里 322번지, [具義弘] 26세, 목공, 본적 및 거주지: 서부면 甘一里 349번지, [具義漢] 24세, 안경 및 전기상, 본적: 중부면 산성리 526번지, 거주지: 仁川府 花甲(平?)里 275번지, [李漢義] 일명: 具

그런데 1929년 3월 5일 南漢山勞動共助會 상무 趙濟浦이 “원산과업단에 격문을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밀경에 연행되어, 5일 간의 구류형을 받았다³⁴⁾는 기사로 미루어 보면, 남한노동공조회 조직에 앞서 남한산노동공조회라는 단체가 활동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언제홍이 산간회 광주지회 활동에 참여하였던 인물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남한노동공조회가 남한산노동공조회의 후계단체 성격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鄭永培의 『假出獄關係書類』를 근거로, 광주공산당협의회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영배는 남한노동공조회에 가입하여, 石惠機의 지도하에 “좌익서적을 읽고 점차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1930년 가을부터 그는 남한노동공조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의 교사가 되어, 농촌소년을 상대로 계급의식을 주입하였다. 1933년 6월에는 “공산주의 연구를 위해 소련에 갈 뜻을 품었다고 한다.

1935년 1월 31일 석해환·정영배·김홍중은 匪情部·金費用과 함께 석해환의 집에 모여, “금후 조선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의식이 고양된 동지를 획득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남한노동공조회와 광주협동조합에 대체할 새로운 단체를 조직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2월 6일 석해환·구본홍·구자홍·김홍중은 匪情部·具喜書·김귀용·姜達榮·具完會·具承會와 김홍중의 집에 모여 “조선 공산화를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로서 廣州共產黨協議會라는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정영배가 미리 작성해 온 “우리를 부산계급은 공고하게 단결을 기도하며, 근로대중을 본위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죽을 각오로 매진하며, 반역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요지의 장엄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秘密書部: 석해환, 調査宣傳部: 정영배, 經濟部: 구본홍·구자홍, 敎養部: 구승희의 조직체제를 갖추었다. 이후 4월 5일 서울 동숭동 樂山에서, 6월 5일 고양군 광강리 뒷산 大聖庵에서, 9월 13일 龍驤神宮 앞에서 만나, 활동방향과 단원확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載, 27세, 평민, 본적: 충청면 산성리 104년지, 거주지: 서울군 北洞 本洞里 383년지(같은 자료 000633~000654쪽).

34) 『朝鮮日報』, 1929년 3월 12일.

1936년 1월 분실된 조직관련 문건이 일경의 수중에 들어감에 따라, 이들의 존재가 일제에 포착되었다. 이들은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36년 4월 23일 재판에서 형이 결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³⁵⁾

그런데 남한노동공조회·광주공동조합·광주공산당협의회 활동의 주도인물인 石恩煥은 1927년 이래 신간회 광주지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는 적어도 1920년대 후반기이래 성남지역을 무대로 한 대중운동에는 석해환으로 대변되는 주력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암시한다. 또 이 지역 대중투쟁이 이들 주력그룹의 리더십하에 계기적·지속적으로 전개 발전해 나갔음을 뒷받침한다.

광주공산당협의회회지 성격 및 활동취지를 알릴 수 있는 자료로 '기관지'의 내용이 파악되는데, 이는 정영태가 작성한 반지 2매 분량의 등사인쇄물이었다.

15년간 우리들이 지켜 온 南漢勞動共助會는 3월 23일 해산하였다. 동 회는 실재투쟁에 있어서는 불안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 무산계급의 사명과 조직투쟁의 모든 행동을 좌절시켰다. 즉 계급의식을 심어주었다. 회지 평정은 사라졌지만, 우리들은 영원의 없어지지 않는 會(광주공산당협의회, 필자)를 갖고 있다. 우리들은 육신이 잊어지고 뼈와 살이 가루가 되는 그날까지 自由의 赤旗를 높이 내걸고 전진해야 한다.

러시아 3월혁명을 시작한 인물은 오로지 勞動者와 兵士이었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행복 자유를 얻기 위하여 專制政府를 파괴하고, 전러시아의 권력을 독점하였다. 민중은 무지하다고 말하지만, 마침내 자본가 계급에 속지 않고 소비에트를 조직하여, 그들의 출생한 지도자인 레닌의 지도 하에 완전한 노동자·농민적 혁명인 11월혁명을 할아들었다.³⁶⁾

이같은 내용은 1930년대 혁명적노동조합운동의 일면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

35) 이광이 선고받은 형량은, 석해환: 징역 3년, 정영근: 징역 2년 6월, 김홍준·구본홍·구자홍: 징역 1년에 3년간 감형유예, 구장서: 징역 10월에 3년간 감형유예, 이경재: 징역 6월에 2년간 감형유예였다. 구송회는 1938년 3월 6일 가석방되었고, 정영태는 1936년 5월 23일 대관형무소로 이감 수용되었다가, 1938년 6월 가석방되었다.

36) 이상 「(정영태)가솔육관계서류」 참조.

트루아지 민족주의 우파세력이 합일민족운동 대오에서 탈락해버린 사실과, 일제의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을 배경으로, 농민·노동운동이 반제 민족운동의 정치주체로 전환해 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³⁷⁾

그리고 정명배 등이 광주공산당협의회를 15년 이전으로 올려잡고 있음에 주목하면, 이들은 1920년대 초반부터 노동운동을 포함한 대중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공유했을 셈이다.³⁸⁾

광주공산당협의회 조직원들은 인천과 영동포 공작지대에 침투하여, 1934년 조선공산당계간운동 차원에서 조직된 인천척석노동조합 등에도 연계활동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추컨대 광주공산당협의회는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는 세포조직으로서 역할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³⁹⁾

7.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일제하 성남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합일민족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廣州水利組合 소속 지주 및 농민들은 일제지배기원에 대항하여 자주권 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신간회 광주지회 결성시절이기도 한 1927년 여름 조합원을 중심으로 농민들은 일제 행정기관 당국의 광주수리조합 관할 이익사업을 조선토지개발회사로 이관하려는 시도에 직면하여, 광주수리조합의 직명을 주장하였고, 이후 2년 여 이상을 일제 말단지배기구와 대치하였다. “우리의 사업인만큼 우리가 직명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1920년대 말기 성남지역 주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들의 근대 自我意識은 신간회 광주지회 활동 및 광주공산당협의회 활동의 밑거름으로 역할하였다.

37) 1930년대 혁명적 농민노동조합운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하원호, 「1930년대 노동·농민운동의 전개」, 『한민족독립운동사』, B. 국사편찬위원회, 1990 참조.

38) 15년 전 단체의 존재는 파악되지 않지만, 현순희·이혜영 등 이 지역 대중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의 활동사실에 대한 추적작업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9) 이승갑, 앞의 글, 129쪽.

둘째, 新幹會 廣州支會 활동 또한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영향 하에 수원·인천보다도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유감스럽게도 한순회·적폐환 등 주요인물들의 심문조서나 재판기록 등을 발견할 수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활동상황이나 참여인물에 대한 분석 등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신간회 광주지회 역시 비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에 입각한 주민계몽과 일제기관을 상대로 한 반일 대중투쟁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광주지회의 활동역량이 뒷받침되어, 위의 광주수리조합원들의 자주권 수호운동도 지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어지는 남한노동공조회 활동 또한 신간회 지회를 모체로 축적된 민족운동의 역량을 기반으로 삼았을 것이다.

셋째, 南漢勞動共助會→廣州共同組合→廣州共產黨協議會로 이어지는 노동운동의 흐름은 신간회 광주지회의 후계조직으로서의 성격이 짙다. 즉 석해환을 중심으로 한 신간회활동 참여그룹이 신간회활동이 소강국면에 처하는 단계에서, 정영태·김홍중·구본룡 등 청장년그룹을 참여시켜 남한노동공조회를 조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주사변과 일제의 대륙명량기지화 정책 그리고 제2차 산미증식계획 등, 강화되는 일제 수탈체제를 배경으로, 남한노동공조회는 혁명적 노동조합의 성격을 지향하는 광주광산당협의회 활동으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의 1920년대 후반기 성남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농민·노동운동은 같은 시기 국내민족운동의 주요 경향이었던 농민·노동자층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대중투쟁의 발전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항일민족운동의 지방사적 전개와 주요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약정토론문

장석홍 (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크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 大河를 이루듯이, 지역사는 민족사 내지 국가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사회의 행동을 지향하는 근대에 이르러 역사 대상의 폭이 확대되면서, 지역사는 역사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전대, 전민족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의 종합적 성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대한 해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이 지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사는 전체사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생성되었던 점에서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독립된 연구 분야로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래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역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성남은 1973년에 새롭게 탄생한 도시로서 지역사 연구에 남다른 어려운 점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 1백만에 육박하는 밀집 도시로 변모했지만, 성남지역은 역사공간설정으로 볼 때 매우 협소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 탄생의 배경부터 집단 미주들 통해 이뤄진 곳이라,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압도적인 현실도 지역사에 대한 관심 내지 연구의 활성화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더라도 이 지역은 남한산성이 말해주듯이 유서깊은 역사를 간직한 고장으로, 근대에 이르러는 근기지역에서 의병전쟁의 기치를 가장 먼저 올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상도 교수께서는 1920-30년대 전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을 주제로 다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려운 주제로, 이 분야 연구의 레코원은 무엇보다 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교수께서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가며 학생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신간회 지회 활동, 노동운동, 공산당계건운동 등에 걸쳐 노고를 기울인 발표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이 발표는 향후 전남지역 항일민족운동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연구의 심화를 바라는 뜻에서 한상도 교수님께 몇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째,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이 발표에서는 1921년에 일어난 광주공립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동맹휴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당시 이 지역의 교육환경도 함께 살펴볼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이 지역에 공립보통학교가 몇 개가 있었는지, 학생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와 아울러 이들의 항일의식의 성장과 관련하여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동향은 어땠는지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신간회 지회가 인근과 다른 지역보다 밀착 설립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1927년 7월 수리조합운동과 연관지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셋째, 신간회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순회, 석해환 등에 대한 인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순회가 천도로 계열이고, 석해환이 사회주의 계열로 파악되는데 이들 두사람의 분석에 그치지 말고 좀더 폭넓게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광주지역의 천도로 전과 상황 등도 신간회 지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넷째, 1930년대에 이르러 이 지역 항일운동은 석해환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는 노동운동 내지는 공산당 계건운동 형태의 비밀결사 활동으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사민체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지역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의 역사가 15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성남 지역사의 대상 범위도 넓고 넓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구획된 성남시 지역에 한정하여 살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광주 권역을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함께 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제하 성남지역의 항일민족운동」 약정도론문

조재곤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 연구사적 의의

다년간 해외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업적을 쌓은 한상도 교수는 연구분야를 확대하며 성남지역 항일민족운동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지역사 연구의 특성상 모래알 같은 단편적인 자료를 하나하나 어렵게 모아 1920-30년대 이 지역 항일민족운동의 특징과 실적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이 분야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시각과 내용에 대해서

필자는 서울의 민족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면서 문제의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1973년 이전 광주군과 성남시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 파악하여 작업을 전개. 필자는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자료를 비롯한 새로운 자료발굴을 통해 내용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필자의 논리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시기적으로 1920년대 초반은 학생운동, 1920년대 후반은 청년운동과 수리조합의 '자주권 수호운동', 1920년대 후반-30년대 초반의 신간회 광주지회 활동, 1930년대 혁명적 노조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양상이 보인다.

이는 이 지역 역시 다른 대도시 지역의 운동과도 비슷한 형태의 이행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도 강조하고 있듯이 신간회 광주지회는 수원과 인천보다도 2달에서 4달 먼저 설립되어 이 지역이 선전적임을 알 수 있었고, 이 지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역시 명동포와 인천 등 공업지대와 연계하여 다 지역 운동을 건

인하고 선도하는 점 등이 특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또한 이점에 크게 공감하며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필자가 미리말에서 언급한 서울의 민족운동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있으면 좋을라 한다. 또한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지만 현재의 지명으로 파악 가능한 서울과 광주 지역의 사례들은 분명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어렵거나, 내용을 매체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구조적 문제

살남지역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배경, 위상, 학문, 사회 경제적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계급, 문장간의 갈등 구조 아니면 토착세력과 이주세력 문제는 없었는가?

이 지역 민족운동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참고가 될 만한 자료

李正東 : 서울 의선동 거주, 본적 광주군 중부면 삼성리. 1934년 치안유지법 위반, 광주공립보통학교 졸업, 광주군 중부면 서기견습생 출신, 일본 도학, 남경 군사학교 관련자.(1934년 6월 18일 경성중도경찰서 이정재 신문조서)

朴尙顯 (본관 밀양, 울산 출생) : 1917년 음 6월 9일 '廣州郡 外洞國 麗洞의 朴尙顯 집'에서 우리진, 채기중, 김한중 등이 장승원 상해를 모의.(1921년 11월 1일 경성지방법원의 禹利見 신문조서)

金敦南 : 1920년 음 8월 초순 대한독립단원 金起漢은 姜芝馨이 왕십리의 집에서 廣州의 金敦南 및 李淵 등과 회합, 통지서 및 영수증 등 각종 인쇄물 작성을 논의.(1920년 11월 4일 경성중도경찰서 金起漢 신문조서)

李淵編 : 경기도 광주군 출생, 1909년 5월 내란죄의 혐의로 한성지판소에서 금고1

년 1개월 처분을 받고 서대문감옥에서 복역, “꽃지형은 나의 향리 사람이므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김기환은 1920년 음 9월 말 장지형은 이범석에게 규칙서와 사관서 각 1부를 광주군 寓村 李龍錫에게 건네 줄 것을 지시, 그러나 이범석이 경성에 가 있어 그날 돌아와 다음날 장에게 전달.(1920년 11월 15일 경성공로경찰서 李周鎭 신문조서)

羅嘉熙 : 본적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광주 출생. 남한산공립보통학교 졸업, 세브란스 치과외원 기공설 견습생, 천진 거주후 귀국. 약방집원. 金德元, 鄭必成 등 중국 군관비행학교 관비생 입학에 편의 제공.(1936년 5월 5일 경성공로경찰서 羅嘉熙 신문조서) 최도남은 1934년 10월경부터 1935년 1월경까지 천전에 거주. 돌아온 후 1935년 3월경부터 김덕원 등과 교우. 그의 중국군관비행학교 입학에 전송하고, 여비송금 약속 등 편의를 제공.(1936년 5월 11일 사상옹의자 羅人조사 상황의 전[공로경찰서 보고])

廉宰桓 : 광주군 중대면 출신. 광복군 제2지대원.

집행위원회

대회장 : 남천우

위원장 : 권화숙

위원 : 백남욱, 권준섭, 서승갑, 정은경

제8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일제하 성남지역의 민족계몽운동 양상

인쇄 : 2003년 9월 22일

발행 : 2003년 9월 27일

발행인 : 남천우

발행처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6005번지

전화 : (031) 756-1028, 1082

팩 스 : (031) 756-1056

※ 이 논문집 발행권 성남시 문화연구지원금에
의하여 제작하고, 무료 배포하임.